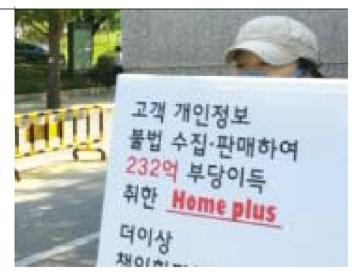
News p/2



신경숙 표절논란 마녀사냥?

metro®
메트로 2015년 6월 22일 월요일 제3241호 www.metroseoul.co.kr

News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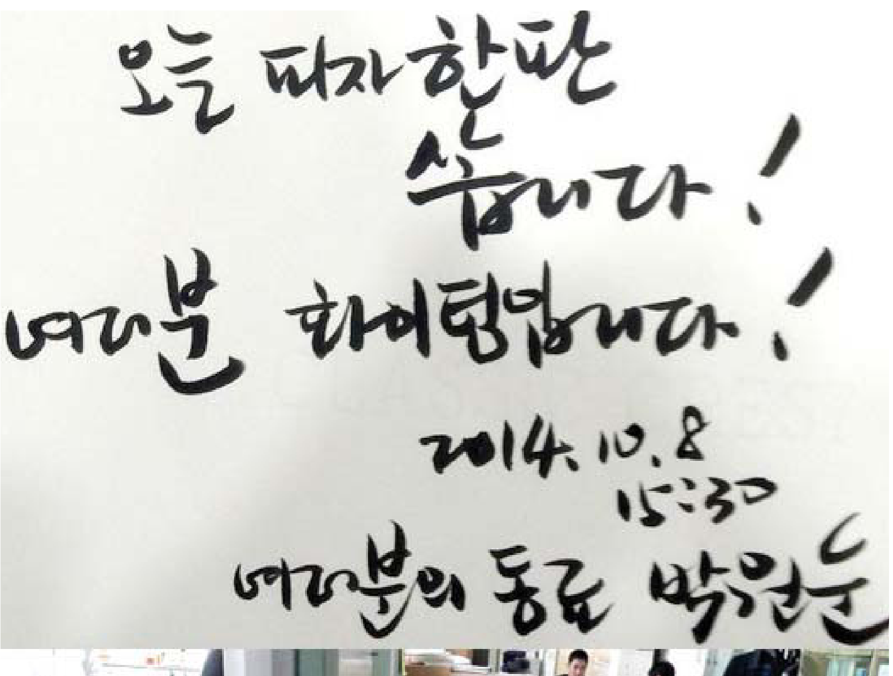



홈플러스, 또 집단소송 위기

# 합법적으로 쓴거 맞아?




2004년 3월29일 박원순 당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와 ㈜도미노피자코리아 오광현 대표가 서울 가회동 아름다운재단 사무실에서 '3082 아름다운 피자파티 캠페인' 조인식을 가진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출처 = 박원순시장 카카오스토리

## 박원순 시장, 1~5월 도미노피자 값만 754만원
## 업무추진비로 '직원 간식비 지급' 근거규정 없어
## 4월부터는 피자가게 이름도 비공개… 의혹 증폭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들어 5월까지 총 754만여원어치의 특정 브랜드 피자를 업무추진비로 주문해 공무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혈세인 공금을 직원 간식비로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주문처가 특정 외국계 브랜드 피자에 집중돼 있는 데 대해서는 박 시장의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 시장은 10여년전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로 있을 때부터 (주)도미노피자코리아와 인연을 맺어온 정황이 나와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규정한 행정자치부의 관련 규칙은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피자 등 간식 제공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박 시장의 직원 격려 명목 피자 구매가 규정에 맞는 것인 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서울시는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시용내역 공개와 관련해 4월치부터 일부 항목의 경우 공개범위를 되레 축소한 것으로 나타나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관련 제도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21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박원순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박 시장은 올 1~5월 총 38회에 걸쳐 754만5730원어치의 도미노피자를 업무추진비로 구입해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월별 피자 주문건수와 금액은 △1월, 10건 192만5700원 △3월, 14건 268만7720원 △4월, 12건 260만3700원 △5월, 2건 32만8610원이다. 주문한 피자는 모두 도미노피자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업무추진비 공개 방식을 조금 바꿨다. 문제는 4월 사용분 부터 일부 항목에 대한 공개범위를 예전보다 되레 축소했다는 점이다.

피자 주문 내역의 경우 3월까지는 '도미노피자 서대문 통일로' 등으로 가게이름까지 알 수 있게 했는데 4월치 부터는 단순히 '도미노피자'라고만 기재해 공개범위를 좁혔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피자 주문이 '도미노피자 서대문점'이라는 특정 가게로 집중돼 있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박원순 시장은 2004년 3월 당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주)도미노피자코리아(대표이사 오광현)와 '3082 아름다운 피자파티 캠페인'이라는 행사를 공동으로 벌이는 등 상호 협력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행사는 도미노피자의 온라인 판매 수익금의 1%를 별도로 적립한 뒤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 불우 이웃에게 피자를 전달한다는 내용이었다.

공무원인 서울시 직원 간식용 피자구입이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정한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인 지도 논란이다.

행자부의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장 등이 상근직원을 상대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용도는 △위로금품(부상자·사망자 유족) △격려금품(우수 퇴직자·우수 입상자·현장 근무자·비상 근무자 등) △식사제공(하급기관 방문시·업무추진 격려 등) △의례적인 선물 등 4가지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쓴 피자 대금을 '현업·우수부서 격려 등' 용도로 하고 있다. 격려금품은 '금일봉'이라고 불리는 격려금과 기념시계 등 격려품을 합친 개념인데, '밤섬 청소 직원(3월26일)' 등 에게 사준 피자는 '격려품'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이 피자를 사준 상당수 경우는 '시청 관광정책 활성화 촉진 직원(5월26일)', '시민건강개선에 기여한 직원(3월28일)' 등 통상적인 업무를 본 직원들이다. 박 시장이 이들에게 사준 피자는 격려품이나 식사라기 보다는 '간식'이라고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재정법과 행자부 규칙 등에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직원에게 간식을 사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서울시 측은 "박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절한 용도로 사용됐으며, 피자 주문처가 특정 브랜드의 가게로 집중돼 있는 것은 배달 등이 신속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복현명기자 hmbok@metroseoul.co.kr

# 신경숙 표절 논란 "마녀사냥식으로 풀 일 아냐"

## 한국작가회의 "성숙하고 진지한 논의 통해 해결해야"

신경숙 작가의 표절 논란이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시인 겸 소설가 이응준 씨는 한 온라인 매체 기고문을 통해 신 작가의 소설 '전설'이 일본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우국'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설'을 펴낸 창작과비평(창비)은 방어에 나섰지만 문단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여론은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19일 "표절문단을 일벌백계하고 출판권력을 바로잡아 달라"며 신 작가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검찰 고발까지 동원되자 문학계는 다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작가회의는 21일 "검찰수사는 해괴한 일"이라며 "성숙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씨도 "글 쓰는 사람들이 글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법정 공방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신 작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출판사를 운영하는 최아무개씨는 이번 논란에 대해 "이익 집단으로 변질된 한국 문학계의 밥그릇 싸움이 결국 폭발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1963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난 신경숙은 15살 때 서울로 올라왔다. 구로공단의 닭장 같은 집에서 살았던 그는 동남전기에 취직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영등포여고를 다녔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공부를 하며 작가의 꿈을 키웠다.

최씨는 "신경숙은 소위 말하는 한국 문학계의 주류가 아니다. '공순이' 출신으로 대학도 당시 전문대였던 서울예전 문예창작과를 나왔다. 신경숙은 자신의 삶과 경험을 소설로 옮기는 대표적인 작가다. 그의 초기작 '외딴방'을 보면 학창시절 어려웠던 삶이 그대로 표현된다. 하지만 신경숙이 '엄마를 부탁해'로 인기작가가 되면서 그의 투명하고 창작력이 돋보이는 문장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된 출판사가 만든 비극"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표현에 따르면 현재 한국 출판계는 스타 작가를 만들고 몇 몇 스타작가의 인기에 편승해 소설을 찍어내듯 만든다. 두세달씩 호텔에 감금하다시피 하며 원고가 마감될 때까지 못나가게 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쥐어짜다 보니 표절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최씨는 이어 "한국 문학계는 특정 대학 출신들의 이른바 주류라인이 있는데 여기에 편입되지 못한 신경숙에게는 적이 많다. 특히 신경숙이 너무 잘나가다 보니 이를 아니꼽게 보는 작가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작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한국 문학계가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신경숙 작가도 침묵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정면돌파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지만, 문단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녀사냥식으로 상황을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 다음은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우국'과 신경숙의 '전설'에서 표절이 문제되는 부분(출처=허핑턴포스트코리아)

두 사람 다 실로 건강한 젊은 육체의 소유자였던 탓으로 그들의 밤은 격렬했다. 밤뿐만 아니라 훈련을 마치고 흙먼지투성이의 군복을 벗는 동안마저 안타까와하면서 집에 오자마자 아내를 그 자리에 쓰러뜨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레이코도 잘 응했다. 첫날밤을 지낸 지 한 달이 넘었을까 말까 할 때 벌써 레이코는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고, 중위도 그런 레이코의 변화를 기뻐하였다.

— 미시마 유키오, 김후란 옮김, 「우국(憂國)」, 「金閣寺, 憂國, 연회는 끝나고」, 주우(主友) 세계문학20, 주식회사 주우, P.233. (1983년 1월 25일 초판 인쇄, 1983년 1월 30일 초판 발행)

---

두 사람 다 건강한 육체의 주인들이었다. 그들의 밤은 격렬하였다. 남자는 바깥에서 돌아와 흙먼지 묻은 얼굴을 씻다가도 뭔가를 안타까워하며 서둘러 여자를 쓰러뜨리는 일이 매번이었다. 첫날밤을 가진 뒤 두 달 남짓, 여자는 벌써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다. 여자의 청일한 아름다움 속으로 관능은 향기롭고 풍요롭게 배어들었다. 그 무르익음은 노래를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 속으로도 기름지게 스며들어 이젠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가 여자에게 빨려오는 듯했다. 여자의 변화를 가장 기뻐한 건 물론 남자였다.

— 신경숙, 「전설」, 「오래전 집을 떠날 때」, 창작과비평사, P.240-241. (1996년 9월 25일 초판 발행, 이후 2005년 8월1일 동일한 출판사로서 이름을 줄여 개명한 '창비'에서 「감자 먹는 사람들」로 소설집 제목만 바꾸어 재출간됨)

# 시내면세점, 중견기업 아닌데 꼼수 입찰

## 홍종학 "거대기업이 자회사 내놔 신청… 자격있나"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과정에 있어 실제로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다수가 중견기업으로 입찰 신청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홍종학(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중견기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고있다고 주장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보세판매장의 특허비율)에는 중견기업 충족요건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 미만일 것 △자산총액이 1조원 미만일 것 등이 명시됐다.

하지만 매출과 자산총액의 기준을 '연결 재무제표'로 할 것인지, '개별 기업 재무제표'로 할 것인지가 명시되지 않아 다수의 기업이 사실상 중견기업의 범주를 넘었음에도 개별을 제시해 중견기업으로 입찰신청을 했다.

연결 재무제표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기업이라도 경제적으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조직체로 간주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면세점에 중견기업으로 입찰신청을 한 유진기업은 2014년 개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약 9446억원, 매출 4840억원이다. 하지만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자산총액 약 1조2640억원, 매출 7390억원으로 시행령이 정한 중견기업 범주를 초과한다.



사실상 중견기업으로 면세점 입찰 신청을 할 수 없는 기업이다.

파라다이스 글로벌의 경우는 2014년 개별 기준 자산총액 약 6800억원, 매출 약 2130억원이며 연결기준으로 자산총액 약6870억원, 매출 약2500억원이다. 연결기준으로도 중견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모(母)회사인 파라다이스 그룹은 연결기준 자산총액 약 1조6020억원, 매출 약 6760억원이다.

하나투어는 2014년 개별 기준 자산총액 약 3650억원, 매출 약 3150억원이며 연결기준 자산총액 약 4370억원, 매출 약 3850억이다. 연결기준으로 중견기업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자회사 40여개의 매출을 합하면 약 6000억원에 달해 중견기업의 범주를 벗어나게 된다.

홍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에게 "거대 기업이 자회사를 내놓아서 면세점을 신청하면 자격이 있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좀 더 따져보겠지만, 자체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현기자 minus@

# 韓·日 화해 대가로 위안부 소녀상 철거요구



독도수호국제연대 독도아카데미 소속 대학생과 고교생들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를 찾아 묵념하고 있다. 광복 70주년 맞이해 일본제국주의 만행의 상징을 돌아보는 현장교육에 나선 학생들은 이날 경복궁 건청궁 내 명성황후 시해현장과 일본대사관, 서울시립미술관을 둘러봤다. /연합뉴스

## 한·일 수교 50주년 계기 관계정상화 최대 걸림돌 전망

일본 정부가 서울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일본과의 관계정상화에 나선 우리 정부의 최대 고민이 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20일자 보도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은 성노예라는 표현의 미사용 이외에 서울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소녀상의 철거와 (민간단체의) 타국에서의 일본 비난 활동에 대해 (한국) 정부의 관여 중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에서 합의를 도모할 경우, 한·일 양국 정부가 문제를 종식하겠다고 선언하고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가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일본이)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8일자 보도를 통해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사죄나 책임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일본대사가 피해자를 면회하는 방안, 한국은 박근혜 정권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보증하고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위안부 재정 지원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사실상 인정해 돈을 냈다'고 국내에 설명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의 보도는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보다 사실관계에 더 부합하고 있다는 평가다. 우리 외교당국자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협의 중이라는 등의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교도통신은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국 측이 이를(일본 측 요구를) 거부하고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요구하면서 양측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은 2011년 12월 14일 세워졌다. 민간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수요집회가 1000회째를 맞는 날이었다. 위안부 소녀상은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세워져 일본 과거사 문제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에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왔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펴낸 '일본, 세계의 중심에서 피어나라'는 제목의 자신의 책에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일본에 대한) 모욕적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송병형기자 bhsong@

# 靑 '유승민 찍어내기'는 메르스 분풀이?

##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신 정치적 해결 모색해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찍어내기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두고 당·청 간 협상을 통해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이에 따라 유 원내대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집중타를 맞은 청와대의 분풀이 대상이 된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21일 현재까지 새누리당 내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모두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대신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상태다.

친박인 정우택 의원은 이날 방송에 나와 "국회법이 여야와 국회의장의 합의로 한 번 고쳐서 송부됐으니 대통령이 그것을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사인해서 법을 공포(하면서도) 위헌 소지가 있으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1년 걸리니 그때까진 유보적 상태로 가지 않겠냐"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청관계는 물론 국회와의 관계까지 회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박인 김성태 의원은 지난 19일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와 박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회동을 통해서 민심의 현주소와 정국의 올바른 진단과 원인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친박 내부에서조차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거부권 행사의 후폭풍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당 내부에서는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국회법을 관철시킨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김 대표는 유 원내대표와는 달리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의될 경우 청와대와 보조를 맞춘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다. 유 원내대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상황이 심상치 않지만 청와대는 입장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야당이 양보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단 한 글자 고쳤을 뿐'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 원내대표 사퇴론을 제기한 친박 핵심들도 마찬가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강행하려는 배경에 대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를 자초한 무능정부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정부는 이미 국정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 박 대통령 지지율은 29%로 급락했다.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정국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분풀이 대상이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 사망자가 발생하는 순간까지 국회법을 두고 유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치권과 자존심 대결을 벌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정원기자 garden@metroseoul.co.kr

#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책임자 입 연다

주한미군 탄저균실험 책임자가 지난 수년간 한국에서 실시한 작업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 정부나 국민이 대상은 아니다. 오는 22~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서 열리는 세계 생물방어 서밋 2015 참가자들이 대상이다.

21일 생물방어 서밋 2015 한국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국방부 주피터(목성)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피터 이매뉴엘 박사는 25일 오전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수년간 미 국방부가 한국에서 수행해 온 기술개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2012년 11월 목성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탄저균 등 생물무기 조기경보체계에 대한 첨단기술개발(ATD)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다. ATD는 레이더, 적외선, 열센서의 조합체를 만들어 화학 및 생물탐지 능력을 신속·정밀화하는 게 골자다.

목성 프로젝트는 '30년 로드맵'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장기적인 생물방어 프로그램의 일부다. 미국은 여러 공개자료를 통해 생물무기감시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전국 수준으로 일체적인 생물무기감시 계획을 추진하고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여기에 연방, 주, 지방정부, 민간기업, 비정부조직은 물론이고 협력관계에 있는 국제조직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 8:30 KEYNOTE PRESENTATION:

Luminex.

**Department of Defense Advanced Technology Demonstrations in Biosurveillance**

*Peter Emanuel, Ph.D., ECBC BioSciences Division Chief & JPEO-CBD JUPITR ATD Lead, Aberdeen Proving Grounds*

Early detection of disease outbreaks and WMD attacks is vital to minimizing casualties and restoring operations. All-hazards biosurveillance must involve afforable field detection and robust on-site analysis that integrates the data and shares it in real-time across wide areas. This talk will discuss the DoD's execution of a multi-year field demonstration in South Korea that has examined how to field a large scale system.

> 9:00 KEYNOTE PRESENTATION:

**Advances in National Biosurveillance - Integrating New Analytic Capabilities for Improved Early Warning and Situational Awareness**

*Steve Bennett, Ph.D., Executive Director, National Biosurveillance Integration Center,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such as the current Ebola outbreak in West Africa, or the emergence of new diseases such as SARS, MERS-Coronavirus, or new strains of avian influenza, all present difficult challenges in using traditional epidemiological approaches to the early warning problem. This talk will present a motivation for why the early warning problem is both important and difficult, and will present recent advances in the integration of different analytic capabilities as an important way forward.

세계 생물방어 서밋 2015 홈페이지에 소개된 주한미군 탄저균실험 책임자(위쪽) 자료화면.

## 한국 대상 아닌 미국 컨퍼러스 참석자 대상

이매뉴엘 박사는 지난해 12월 미국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려면 한 점에서 시작해 원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 한 점으로 선택된 곳이 바로 한국이다.

이매뉴엘 박사는 한국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주한미군의 지도부가 (생물무기 방어능력을) 요구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해 보길 원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미국의 자산이 집중된 호의적인 국가"라며 "ATD라는 아이디어를 시험할 경우 실패와 성공이 있기 마련이어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수용적인 나라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지정학적인(북한과의 대치) 문제가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목성 프로젝트를 위해 탄저균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탄저균 오배송 사고가 발생했지만 미 측은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사고는 없었다며 단순히 사과하는 선에서 문제를 종결지었다. 또 탄저균 실험장소가 목성 프로젝트의 3곳보다 한 곳이 더 늘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해명도 없는 상황이다.

/송병형기자 bhsong@

## 박 대통령, 가뭄에 "하늘이 돕지 않겠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가뭄 피해 농민들에게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하늘이 돕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가뭄 피해가 큰 인천 강화도를 찾아 농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려울 때는 한마음이 돼서로 용기를 줘가면서 하면 힘이 생긴다"고 격려했다.

또 "제가 비를 몰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물의 양을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장마 오기 전에 준설작업을 끝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화도는 평균 저수율이 3%에 불과해 58ha의 벼가 고사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박 대통령이 찾은 강화도 흥왕저수지는 이번 가뭄으로 고갈돼 비상 급수대책이 추진 중이다. 평소에는 인근 논 180ha에 물을 공급하던 시설이다.

박 대통령은 현장에서 소방대원들과 함께 농업용수 지원 소방차량의 호스를 이용해 논에 물을 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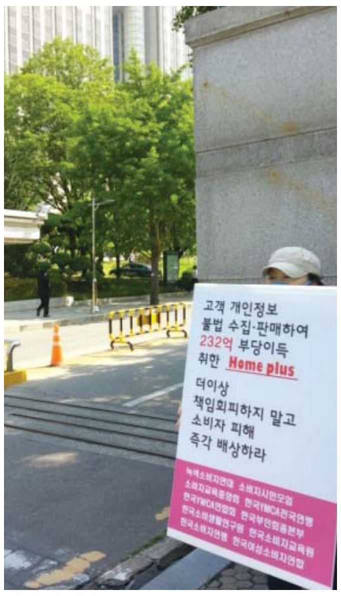
이날 박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는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상복 강화군수가 함께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중남미 순방 중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고 교민들을 격려한 바 있다. 브라질의 문호 파울루 코엘류의 소설 연금술사의 문구를 인용한 말이었다. /송병형기자


**황교안 총리와 김현웅 법무장관 내정자**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황교안(오른쪽) 총리의 제청을 받아 비어있는 법무장관 자리에 호남 출신의 김현웅(56) 서울고검장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호남 출신 장관이다. 김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16기로 김진태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4기)보다 기수가 낮다. /연합뉴스

#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또 집단소송 위기

## 경실련 등 10개 단체 이달말 소 제기할 듯… 2천여명 참여 예상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상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2차 공판이 열린 지난 2일 오전 9시부터 50분간 서울중앙지법 정문과 후문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홈플러스가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기에 처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개인정보 판매 의혹을 받는 홈플러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접수를 마감하고 이달 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재판으로도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참여연대가 62명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참여인단은 총 2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 단체는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홈플러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최근 접수를 마감하고 집계를 마쳤다"고 밝혔다. 소송은 경실련과 소비협이 별개로 진행하며 배상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경실련·진보넷은 소송 참여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1150명의 참여인단을 모집했다. 소송 참여자 대부분은 홈플러스 가입 회원이다. 경품 응모 참여자는 피해여부를 확정짓기 어려운 만큼 소송에서 제외됐다. 이들 중 81명은 지난 3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이다. 지난 4월 27일 분쟁조정위는 "홈플러스가 불법 매매를 했다는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조정 신청을 각하해 대기업 감싸기 등의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이들이 지난 3월 9일 개인정보 불법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 열람을 홈플러스에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폐기 의혹도 받고 있다. 피해 여부를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홈플러스가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홈플러스의 비협조로 이달 말 함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소비협 등 10개 단체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단체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약 700여명의 참여인단을 모집했다. 이들 대부분은 홈플러스 회원이면서 경품행사에 응모한 사람이지만, 일부는 경품행사에만 참여한 사람이다. 유출과 그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소송 인단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좌혜선 소비협 국장은 "경품행사에 참여한 비회원들의 경우 피해 여부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기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고객 동의 없이 회원 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겼다면 제3자 제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참여연대와 진보넷, 소비협 등 단체와 대응 방법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월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231억7000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는 재판에서 "개인정보를 위탁한 것이지 제공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 '이규태 방산비리' 묵인 공군 중령 구속기소




이규태(65·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의 방산장비 납품비리를 알고도 묵인한 방위사업청 담당 장교가 구속기소됐다.

21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 회장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사기 당시 방사청에서 EWTS 사업관리담당자(PM)로 근무한 현역 공군 중령 신모(50)씨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씨는 2010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납품업체인 터키 하벨산(Havelsan)과 국내 하청업체 SK C&C가 소프트웨어 국산화라는 계약내용을 위반하는데도 각종 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들 업체와 사업관리 검토회의(PMR)를 하는 과정에서 애초 SK C&C가 맡기로 한 C2(주전산장비)·SAS(신호분석장비)·TOSS(채점장비) 등의 연구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신씨는 연구개발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PMR 실시완료증명서' 등 공문서 5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벨산이 이들 증빙서류를 근거로 방사청에서 받은 선금은 전체 공급대금 9617만 달러 가운데 6556만 달러(718억원)에 달한다. 합수단은 연구개발 단계별 점검을 맡은 신씨가 비리를 묵인해 국가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합수단은 하벨산과 국내 에이전트사인 일광공영, 연구개발 사업을 하청받은 SK C&C가 짜고 1100억원대 사업비를 나눠가진 사실을 적발해 이 회장과 전 SK C&C 전무 윤모(57)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방사청과 SK C&C에 이 회장의 납품비리에 가담한 인물이 더 있는지 수사 중이다.

/연미란기자



**"동굴로 피서왔어요"**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한 21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광명동굴을 찾은 시민들이 동굴 피서를 즐기고 있다. 광명동굴 내부는 외부 기온이 아무리 높아도 연중 12~13도를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공개불가"

### 정책 방향 포함돼있어 교섭정보로 활용 가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회의록과 내부 검토 문서 등은 일반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고법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정 관련 내부보고서 등에는 일본 측 제안에 대한 대응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됐다"며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이 외부에 노출되면 다른 협정 상대 국가들이 교섭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본 동의 없이 당시 쟁점이 됐던 정보가 공개되면 일본과의 외교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협정과 관련한 한국과 미국의 대화까지 공개되면 미국에 대한 외교적 신뢰도 추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일 양국은 2011~2012년 외교·국방 과장급 협의를 거쳐 협정 문안에 임시 서명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양국이 이를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밀실협상·졸속협상 논란이 빚어졌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정보공개가 거부당하자 "비밀리에 졸속 처리된 협정의 체결 과정 및 내용을 검토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한일 간의 역사적 특수성, 협상에서 미국의 압력 여부, 졸속 처리 관련 의혹 파악을 위해 협상 체결 경위와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난해 6월 판결했으나 외교부는 항소했다. /연미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 로또복권 제655회

| 1등 당첨번호 | | | | | | 2등보너스숫자 |
|---|---|---|---|---|---|---|
| 7 | 37 | 38 | 39 | 40 | 44 | 18 |

| 등위 | 당첨방법 | 당첨금(원) |
|---|---|---|
| 1등 | 6개 숫자 일치 | 1,661,439,625 |
| 2등 | 5개 숫자+2등 보너스 숫자 | 60,784,377 |
| 3등 | 5개 숫자 일치 | 1,547,926 |
| 4등 | 4개 숫자 일치 | 50,000 |
| 5등 | 3개 숫자 일치 | 5,000 |

# 삼성서울병원, 특혜 따로 공익 따로?

## 공익재단서 운영 불구 전염병 등엔 무관심… "삼성기부금으로 자산만 불려"

삼성서울병원이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도 전염병 창궐에 대비한 음압실 설치 등 공익적 활동에는 극히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삼성서울병원의 외래환자가 의사로부터 전화를 통한 원격의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6일 삼성서울병원의 운영주체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이사장 이재용)이 계열사로부터 매년 막대한 기부금을 받아 자산을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1982년 5월 삼성생명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이후 1994년 공익재단은 삼성서울병원을 설립했다. 이 때 삼성의 지분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삼성서울병원은 100% 공익재단의 지분으로 만들어졌다. 삼성공익재단의 재산은 현재 2조원 가량으로 이 가운데 1조원 가량은 계열사 주식이다. 공익재단의 주식은 증여세를 면제 받는다.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매년 1000억원 가량의 돈을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서울병원은 삼성 대주주의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고 삼성생명 보험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박 의원은 "이렇게 삼성생명공익재단이 하는 일은 고작 어린이집 사업 4% 뿐이고 대부분은 수익사업인 삼성서울병원 운영이나 자산을 불리는데 쓰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메르스 최대 진원지로 전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삼성서울병원은 연매출이 1조원(2014년)을 웃도는 국내 최대 병원중 하나다. 1일 약 3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글로벌병원이 음압시설 조차 충분히 갖추지 못해 더욱 화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결국 삼성서울병원은 삼성공익재단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면서 공익보다는 삼성의 부를 축적하는데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감염자가 4명으로 늘어 21일까지 169명 환자 중 83명이 나왔다. 17일에는 삼성서울병원의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가 78명을 감염시켰고 침대를 세 번이나 이동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환자는 3일간 응급실에 체류하면서 마스크를 미착용했으며 병원 로비와 카페를 방문했다. 게다가 이 환자는 복지부에서 발표한 잠복기 14일을 지난 19일 이후에도 감염자를 발생시켰다.

이처럼 삼성서울병원의 부실한 방역과 의료진 관리로 메르스 감염자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지만 정작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19일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했다는 논란과 관련,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전화 처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외래진료가 중단된 삼성서울병원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와 통화해 진찰을 받고, 의약품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서 팩스로 전달받아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에서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 허용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현재 삼성서울병원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대면진료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해당 병의원의 의사와 삼성서울병원 의료진간의 원격협진을 통해 연속적인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의료법으로도 허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7일 삼성서울병원장은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였다.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할 대통령이 병원장에게 사과를 받는 모습은 우리를 아연하게 한다. 삼성서울병원장이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이고 얻은 것이 원격의료의 허용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부산 낙동강 하구 녹조** 21일 오전 부산 북구 구포대교 아래의 낙동강에 녹조 띠가 발생한 가운데 물고기 떼가 유영하고 있다. /뉴시스

# 부부관계 회복 불능시 '파탄주의' 인정해야

## 26일 공개변론 열어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탄주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나 더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에도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간의 판례였다.

1958년 결혼한 A(79)씨와 B(81·여)씨는 5년여 만에 별거를 시작해 40년 이상 따로 살았다. A씨는 고향집에 B씨를 남겨두고 서울로 돈을 벌러 갔고, 그곳에서 새로운 여자 C씨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자녀도 3명이나 낳았다. 법률상 아내는 B씨였지만 A씨는 C씨와 사실혼 관계를 46년간이나 유지했다.

이런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자신의 부모를 모시며 묵묵히 지내온 B씨에게 A씨는 2008년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대법원은 1965년부터 바람 핀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6월 대법원도 이런 관점을 일부 받아들여 별거가 46년간 지속한 데 B씨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면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된다며 사건을 재심리하라고 하급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도 A씨의 이혼청구는 결국 기각됐다.두 사람은 소송이 진행되던 중 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다시 내고 나서야 겨우 이혼할 수 있었다.

대법원이 사건을 26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만큼 판례가 바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앞으로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 法 "전과6범 미국인 '주폭' 강제출국 적법"

상습적으로 폭행과 소란을 일삼은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소가 강제 출국을 명령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미국 국적 A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한국에 입국해 원어민 강사로 일하다 1년여 뒤 출국한 후 2012년부터 관광비자로 입·출국을 반복했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까지 잇단 사고를 내며 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6차례나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출입국관리소는 A씨에 출국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이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해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 술을 자제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적다.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 결정에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원고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연미란기자

# KB금융, 리딩뱅크 재도약… 지각변동 예고

### 美 FRB서 지주회사 자격 승인 총자산 2위로 껑충, 신한 추격

KB금융지주는 이달 내 LIG손해보험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KB손해보험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로써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KB금융의 '리딩뱅크' 탈환과 함께 리더십을 인정받게 됐다. 다만 구조조정 문제와 김병헌 LIG손보 사장의 서금회(서강대 금융인회) 논란 등은 부담 요인이어서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KB금융이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금융당국(FRB)으로부터 미국금융 지주회사 자격을 취득했다. KB금융은 미국에서 손해보험업을 운영 중인 LIG손보를 편입하면서 그동안은 없었던 미국금융 지주회사 자격증이 필요한 상태였다.

앞서 KB금융과 LIG손보 매도인 측은 지난해 6월27일 LIG손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미국지점 손실 등 계약조건 일부 변경에 따라 올해 3월26일 변경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현재 KB금융과 LIG손보 실무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는 CI/BI 변경, 광고, 출범식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LIG손보 매각을 위한 마지막 단계였던 FRB 승인에 따라 KB금융은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열고 KB손해보험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LIG손보 인수를 통해 계열사인 은행, 카드 등과 복합상품 출시 및 교차판매 등 KB금융과 LIG손보간 다양한 분야의 시너지 창출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KB, 리딩뱅크 탈환 발판마련**

FRB 승인 소식이 전해진 지난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LIG손보 주가는 전일 대비 4.16%(1150원) 오른 2만88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는 2만9150원까지 치솟아 올들어 최고점을 찍기도 했다.

업계에선 KB금융의 LIG손보 인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KB금융의 총자산은 3월말 기준 315조7561억원으로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적다. 그러나 총자산이 26조1681억원인 LIG손보를 인수하면 341조9243억원으로 1위인 신한금융그룹(347조4082억원)과 덩치가 비슷해진다.

아울러 KB금융이 하반기 대우증권 인수전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도 관심사다. KB금융은 현재 KB투자증권을 보유중이지만 대우증권을 인수해 증권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KB금융이 LIG손보와 더불어 향후 대우증권까지 인수에 성공할 경우 자산 기준 국내 1위 규모의 금융지주사로 거듭나게 된다"며 "여기에 비은행의 자산 비중도 20%를 넘기며 경쟁사를 뛰어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조조정·서금회 논란 '부담'**

다만 인수 마무리 과정에서 구조조정 문제와 김병헌 LIG손보 사장의 재선임 논란 등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우선 KB금융과 LIG손보 측은 구조조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하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KB국민은행이 대규모 희망퇴직을 시행했고 메리츠화재 등 경쟁사들도 이미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비를 마친 상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양측은 줄곧 구조조정은 없다고 했지만 사업 개편 과정에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KB손보에 김병헌 LIG손보 사장이 재선임 된 것도 관심거리다.

서강대 출신인 김 사장이 KB손보 초대 사장이 되면 지난해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한 '서금회' 논란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

이에 대해 LIG손보 관계자는 "김 사장은 평사원으로 입사해 30년간 보험 전문가로써 실력을 인정받았고 CEO가 된 이후 직원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 등에도 신경을 많이 써 평이 좋은 인물"이라며 "외부 시선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보배기자 bobae@metroseoul.co.kr



## 백화점, 파격 여름세일로 메르스 돌파

### 할인폭·사은품 대폭 늘려

내수 침체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주요 백화점들이 파격적인 할인을 앞세운 정기 여름세일에 돌입하며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세일 기간은 지난해보다 7~14일 줄였지만, 할인 폭과 상품은 대폭 늘렸다.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되는 롯데백화점 여름세일엔 블랙야크·노스페이스 등 전체 아웃도어 브랜드의 90%인 35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블랙야크·밀레·몬츄라·슈나이더 등은 처음으로 신상품까지 할인 품목으로 내놨다.

주얼리 브랜드 '스와로브스키'와 핸드백 브랜드 '루즈앤라운지'도 최초로 할인율을 최대 30%까지 높였다. 슈즈 브랜드 '탐스'도 처음 10~20% 할인한다. 또 쌤소나이트·엘르·비아모노·캘빈클라인러기지 등 잡화 브랜드와 함께 기획한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같은 상품군의 약 절반 가격에 선보인다.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30만원·6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인견 패드·이불 등 쿨 소재 침구류를 증정하는 등 사은행사도 풍성하다.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12일까지 여름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부산점·울산점·울산 동구점·대구점 등 일부 점포의 세일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31일간에 비해 세일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질을 높였다. 인기 세일 상품 물량을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리고 세일 첫 주말에 대형 행사와 이벤트를 집중했다.

압구정본점은 쉐르보 골프웨어 패밀리 세일을 열어 이월상품을 40~70% 할인 판매한다. 목동점은 슈페리어·캘러웨이·블랙&화이트 등 총 10여개 골프 브랜드를 한자리에 모아 7층 문화홀에서 럭셔리 골프 브랜드 대전을 연다. 무역센터점은 계절 상품 대형 행사를 진행한다. 26~28일까지 현대백화점 카드로 30·60·10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겐 상품권 1만5000원·3만원·5만원을 증정한다.

AK플라자는 다음달 26일까지 전점에서 여름세일을 실시한다. 핸드백·구두·주얼리·남녀의류·스포츠·아웃도어 등 전 상품군을 기본 10~30% 세일하고 브랜드별 최고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일부 노세일 브랜드의 경우 금액할인, 사은품·상품권 증정 등을 제공한다.

아이파크백화점은 다음달 26일까지 여름 정기세일을 한다. 잡화·의류·아웃도어·스포츠·가구 등을 10~30% 할인한다. 더불어 구매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품권으로 돌려주기도 한다.

/김보라기자 bora6693@

## 삼성, '합병 열쇠' ISS 접촉 신중해야

### 역효과 우려… 정당성 논리 강화해 해외투자자 믿음 얻어야

삼성이 ISS와 국민연금공단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두 기관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향방을 가를 '열쇠'를 쥐면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다음달 초 예정된 ISS의 보고서와 국민연금공단의 지지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음달 17일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이 결정될 주주총회를 앞둔 삼성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명분을 앞세운 장외전은 물론 법정에서도 합병 찬반에 당위성을 주장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삼성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안을 통과시키려면 주주총회 참석 지분의 3분의 2 이상, 전체 지분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주의 참석률을 70%로 가정하면 삼성은 47%의 찬성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반면 엘리엇은 23%를 확보하면 합병을 부결 시킬 수 있다.

현재 삼성의 우호지분(KCC 5.96% 포함)은 19.95%다. 합병을 위해서는 지분 27%이상 추가확보가 필요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갖고 있는 엘리엇은 우호지분 16%가량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삼성물최대주주인 국민연금(10.15%)과 엘리엇을 제외한 외국투자자(26.49%)들의 이번 합병의 향방을 가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금융투자업계는 국민연금이 삼성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병이 부결 시 하락할 주식가치 등을 고려하면 반대할 이유가 적다는 것이다.

외국 투자자들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다음달 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ISS의 보고서가 나오면 합병에 대한 찬반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ISS는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널의 자회사로 세계 주요 기업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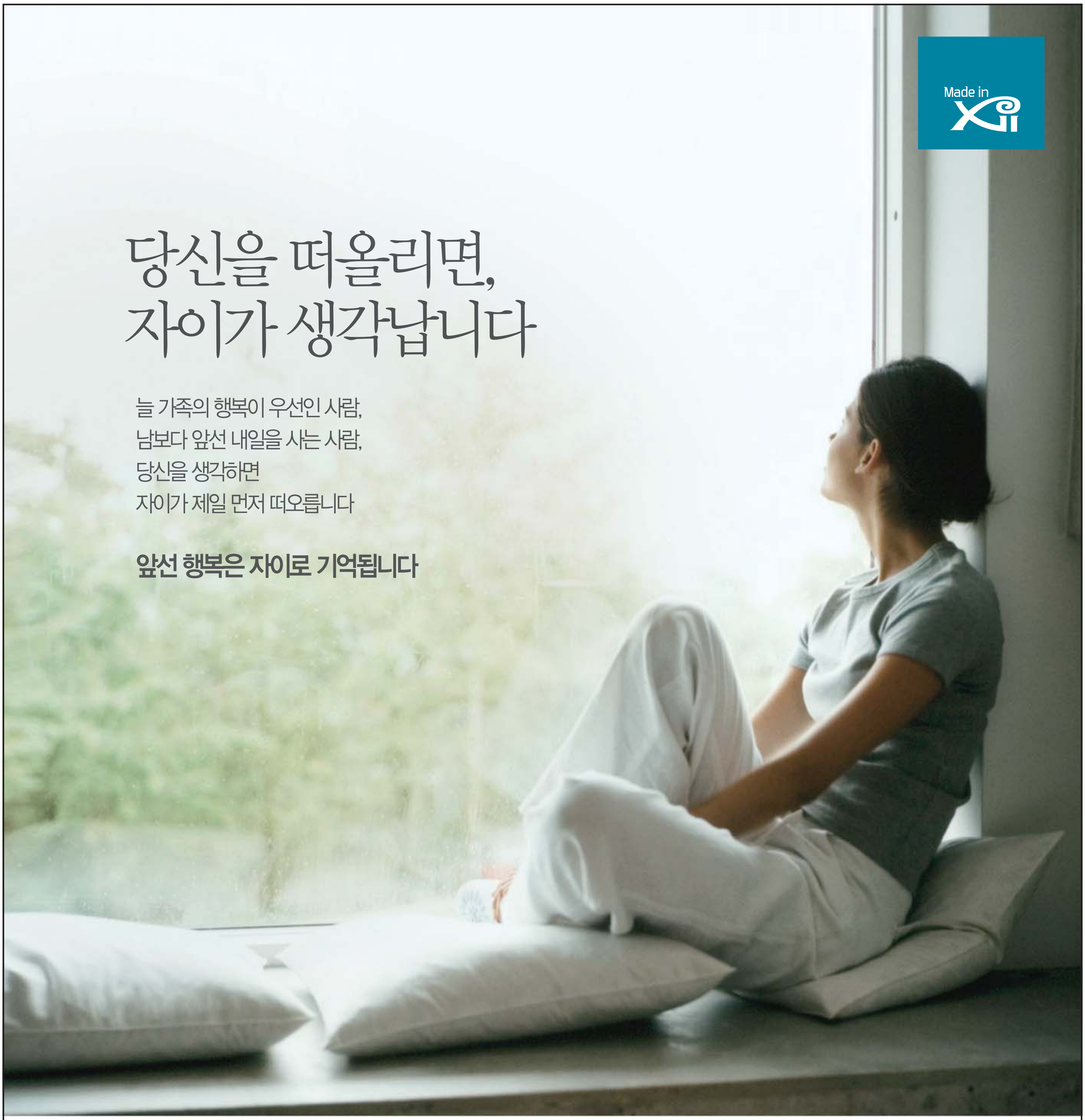

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주요 투자자들에게 의결권을 자문한다. 국내 시장 상황에 상대적으로 어두운 외국계 투자자들은 ISS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삼성은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을 중심으로 외국계 투자자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 사장은 ISS를 상대로 합병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ISS의 보고서가 삼성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합병에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최 사장 등 삼성의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ISS와의 접촉이 큰 실익을 얻기 어렵고,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오히려 합병 정당성에 대한 논리를 강화해 해외 투자자들의 믿음을 얻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뢰성이 가장 큰 자산인 ISS는 자신들의 기존 프로세스에 기반한 리포트를 내놓을 것이다. 오히려 삼성의 섣부른 행동으로 삼성 관계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찬성할 내용도 반대로 돌아설 위험성만 키울 수 있다"며 "삼성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합병에 대한 당위성을 합리적으로 납득시키는 게 음성적인 로비를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




### 옥길지구의 S.M.A.R.T를 만나다
**부천옥길자이**




- 도보로 이용가능한 이마트(계획) 등 다양한 편의시설
- 지하철 1호선 역곡역 및 시흥IC이용

아파트 총 566세대 84 / 90 / 96 / 122㎡, 오피스텔 총 144실 78, 79㎡
시행 : GS건설

**1644–5505**

### 서울, 중심의 가치를 폭넓게 누리다
**왕십리자이**




- 왕십리역(지하철 2,5호선, 분당선, 중앙선 환승역) 인접
- 왕십리 인근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왕십리뉴타운과 접한 가치의 중심

총 713세대 51 / 59 / 84㎡
시행 : 하왕제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800–5239**

### 상동의 자부심을 올리다
**상동스카이뷰자이**




- 혁신적인 설계가 적용된 최고 45층 초고층 아파트
- 지하철 1호선 송내역 초 역세권

아파트 총 405세대 전세대 84㎡
시행 : KB부동산신탁 / 위탁사 : 가나종합건설(주), 지석산업개발(주)

**1661–7654**

※ 청약 일정
- 오피스텔 : 6/22(월) ~ 23(화)
- 아파트 : 1순위 6/24(수), 2순위 6/25(목)

손끝 하나로 컨트롤되는 **홈 네트워크** | 지구까지 생각하는 **그린스마트시스템** | 단지 내 원스톱 커뮤니티 **자이안센터** | 입주민 불만제로를 위한 **CS전용 콜센터**

GS건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홈페이지 : www.xi.co.kr / **고객센터 : 1577–4254**

▶ 본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59조에 의거 적용 됩니다
▶ 상기 조감도 및 투시도는 추후 변경 가능하오니 현장 또는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셔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대포통장 근절” 은행권 전쟁 선포

## 지난해 적발 건수 4만4705건, 증가세 여전
## 장기 미사용 계좌 거래 중지 등 조치 강화



은행권이 대포통장과의 전쟁에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은 장기 미거래 계좌에 대한 거래를 중지하는 한편 통장 개설 요건 등을 강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5대 금융악(惡) 척결대책'의 하나로 대포통장을 꼽으며 금융권에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만3496건이던 대포통장 건수(피싱사기 기준으로)는 2013년 3만8437건, 작년 4만4705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금융사기의 도구로 활용되는 대포통장을 근절시킴으로써 고객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 시스템 강화-특별 기간 운영… "대포통장 은행, 오명 벗는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NH농협은행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올해 상반기에만 348좌의 대포통장을 적발했다.

전체 금융기관 대포통장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율 또한 작년 7.2%에서 지난 5월 기준 2.5%로 감소했다.

이는 작년 3월의 58.6%에서 무려 56.1%가 급락한 것으로 불과 1년 3개월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셈이다.

이를 위해 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도입했으며 올 5월에는 대포통장 모니터링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이는 모니터링시스템과 본부부서, 영업점간 연계를 통해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의 예금주가 창구에서 출금 요청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농협은행은 대포통장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해 11억5500만원의 피해금액을 사기범이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했다. 인출범 15명도 검거했으며, 올 들어 4억94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인출을 방지했다.

전사적 노력으로 '대포통장 최다은행'이라는 불명예를 벗은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특히 대포통장 검출을 위해 모니터링기법을 더욱 정교화하고, 장기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중지계좌 편입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8월말까지 '대포통장 근절 특별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

고객의 입출금통장 신규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모든 입출금통장신규 고객에게 반드시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 공동으로 추진중인 대책 중 '소액·장기 미거래 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와 'ATM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인출한도 제한'도 미사용 기간에 대한 기준을 6개월로 강화해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뿐 아니라 비대면채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통장 양도·매매시 법적 처벌기준과 금융거래 제한에 관련한 내용을 안내해 경각심을 고취키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의 발생을 철저히 근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클린뱅크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포통장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포통장, 빌려줘도 범죄…"신고 포상제·처벌 수위 강화"**

우리은행은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거래중지를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다.

중지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이 거래가 없는 계좌 ▲5만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계좌 정상화를 원하는 고객은 은행 창구를 방문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신청하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2월 신규통장 발급 절차를 강화한 이후, 고객들의 인식전환과 영업점의 노력으로 신규통장에 의한 대포통장 발생비율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다만 풍선효과로 기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를 꾸려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곳도 있다. KB국민은행의 '대포통장 근절 협의체'가 바로 그 곳.

이는 모두 6개 유관부서 부서장과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올해 대포통장 개설예방 교육을 55차례 실시하는 한편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도 구축해 위변조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 개설에서 자금 인출단계까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포통장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동시에 대포통장 거래자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소액계좌 거래는 은행별 순차적으로 중지되며 대포통장 발급·유통 가담자는 수사당국에 고발조치된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 베트남 국영통신기업 비엣텔 경남기업 랜드마크72에 입주

경남기업은 베트남 하노이 소재 랜드마크72 오피스에 베트남 국영통신기업인 비엣텔(Viettel)이 9월 입주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비엣텔은 랜드마크72의 7개층, 약 2만㎡ 면적을 임차했다. 9월부터 자회사 직원을 포함해 약 3500명이 근무하게 된다.

경남기업 소유의 랜드마크72는 대지면적 4만6054㎡, 연면적 60만9673㎡의 초대형 복합건물이다. 여의도 63빌딩 약 3배 규모다.

72층 복합동에 포함된 오피스(12~46층)는 약 17만㎡ 규모로 서울 강남파이낸스센터와 비슷한 크기다. 오는 9월 비엣텔이 입주하면 오피스 전체 상주 근무 인원만 1만3000명에 이른다. 가동률은 85%다.

역시 72층 복합동에 들어선 리테일(6~11층)은 90% 이상 임대를 마치고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기존 백화점 공간(1~4층)은 연초 영업 부진에 따른 대체 임차인을 선정중이다. 국내·외 대규모 유통업체들과 임대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

이밖에 아파트 922가구가 100% 분양을 마친 뒤 약 95%의 입주율을 나타냈다. 총 378실의 서비스레지던스 '칼리다스'도 평균 가동률 90%를 상회하고 있다.

경남기업은 호텔 오픈 자금 등의 명목으로 PF대주단 측에 140억원의 자금 인출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세계 유명 5성급 체인 호텔 중 하나인 인터콘티넨탈과 잔여 공사, 오픈 준비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호텔 오픈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랜드마크72는 전체 가동률이 83% 수준으로, 건물 내 상주인구가 1만5000여 명에 이른다"며 "베트남 거시경제 및 부동산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어 향후 랜드마크72의 가치 상승여력도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KB국민은행, 메르스 극복 위한 응원물품 전달** KB국민은행은 21일 국민안전처,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격리자에게 응원물품을 전달했다. /KB국민은행 제공

## 청약저축 금리 오늘부터 0.3%포인트 인하

### 2년 이상 가입 시 이자율 2.8% → 2.5%

청약저축 금리가 지난 3월에 이어 또 다시 인하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50%로 내리면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1개월에서 1년 미만인 경우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 2.3%에서 2.0%로 ▲2년 이상인 경우 2.8%에서 2.5%로 각각 0.3% 포인트씩 일괄 인하키로 했다.

다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에게는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 새로운 금리도 시중 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했다.

기존 가입자의 2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때는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가입 기간별로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행정예고와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수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개정된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선옥기자

# 현대건설, 강남 재건축 대어 낚았다

## 새브랜드 'The H' 효과… 삼호가든3차 시공사로 반포주공1단지·신반포15차 등 추가 수주도 기대

현대건설이 올해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 삼호가든 3차 시공사로 선정됐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이번 수주로 추후 강남에 추진되는 재건축 시장에서도 유리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호가든 맨션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일 동작구 흑석동 원불교회관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이번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전체 조합원 440명(투표자 429명) 중 175표를 얻었다. 대림산업과 롯데건설은 각각 155표, 96표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삼호 3차는 기존 지상 13층, 6개동, 105~174㎡(이하 전용면적), 424가구에서 지하 3층~지상 34층, 6개 동, 59~132㎡, 835가구로 재건축된다.

삼호3차는 타 재건축과 비교해 일반분양분이 조합분에 달한다. 또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교대역으로 넘어가는 법원 언덕길에 있어 최고의 요충지다.

여기에 강남 재건축 단지 중 올해 처음 시공사를 선정하는 곳으로, 대형 건설업체의 경쟁이 심화됐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자치구인 서초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사들에 대해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새로운 프리미엄 주택 브랜드 '디 에이치'(THE H)를 삼호3차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현대건설은 지난 15일 '디 에이치'(THE H)를 자사 힐스테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론칭하고 이 브랜드를 삼호 3차에 적용키로 했다. 이미 지난 13일 예정된 시공사 첫 조합원 투표 이후에 조치를 취한 것.

강남에서는 이어 반포주공1단지, 신반포15차 등 대형 재건축 공사 수주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대건설이 이번 수주로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의 추가 수주가 수월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12월 조합 설립 인가를 획득한 반포주공1단지는 현재 3590가구로 재건축 시 총 7700여 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단지로 건설될 예정이다. 현재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만 남겨두고 있어 올 연말에는 시공사 선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반포15차는 지난 4월 최고 34층 722가구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299%로 상향하는 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대림산업과 삼성물산이 적극적으로 시공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현대건설은 최근 특별팀을 꾸려 시공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급작스러운 새 브랜드 론칭은 급박한 삼호3차 수주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며 "현대건설이 이번 수주로 추후에 선정될 반포주공1단지, 신반포15차 등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강남 재건축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삼호가든3차 아파트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주로 강남 주요 재건축 사업에서도 유리한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삼성동에서 남산 방향으로 내려다 보이는 강남구 일대의 모습. /뉴시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 '기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등 19개 단지 공급

### 대우·포스코 건설 등 막바지 물량 쏟아내

메르스 공포도 달아오른 분양시장의 열기는 꺾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름 주택시장 비수기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막바지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전국적으로 청약접수 19곳, 당첨자 발표 15곳, 당첨자 계약 13곳, 견본주택 개관 29곳의 일정이 계획돼 있다.

대우건설은 23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역세권 3-2블록에서 '기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전용면적(이하 동일) 84㎡ 아파트 1316가구와 59~84㎡ 오피스텔 182실로 구성된다. 지하철 분당선 기흥역이 도보 거리다. 지구 내 레이시티몰, AK쇼핑몰 등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호반건설과 GS건설은 24일 경기도 부천시 옥길지구에서 각각 '옥길 호반베르디움'과 '옥길자이'의 청약을 진행한다. 옥길 호반베르디움은 72~97㎡, 142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옥길자이는 주상복합 단지로 84~122㎡ 아파트 566가구와 78~79㎡ 오피스텔 144실로 이뤄졌다. 중심상업용지, 이마트(예정)가 인접했다.

포스코건설은 26일 서울 마포구 공덕1-54구역을 재개발한 '공덕 더샵'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19~84㎡, 총 124가구 중 8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 지하철 5·6호선, 인천공항철도, 경의중앙선 4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공덕역이 도보 1분 거리다. 공덕시장, 만리시장, 마포아트센터, 효창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같은 날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하왕1-5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왕십리자이'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51~84㎡, 총 713가구 중 287가구가 일반분양 몫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상왕십리역, 왕십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롯데마트, 이마트, 한양대병원, 무학봉 근린공원, 응봉공원 등이 가깝다. 신당초, 금호여중, 무학중·여고가 인접했다.

대림산업도 이 날 경기도 광교신도시 B3·4블록에 짓는 'e편한세상 테라스 광교' 모델하우스를 공개할 계획이다. 84~273㎡, 총 576가구다. 내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경기대역(가칭)이 인접했다. 이마트(예정), 롯데아울렛(예정), 홈플러스, 성죽공원, 광교홍재도서관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신공영과 제일건설이 세종시2-1생활권P1(L1-M1블록)구역에 공급하는 '한신휴플러스·제일풍경채'의 견본주택도 26일 손님맞이에 나선다. 59~135㎡, 총 2510가구다. 중앙행정타운, BRT(급행간선버스), 중심상업시설이 가깝다. 단지 북쪽으로 다빛초가 개교했고, 남쪽으로 초·중·고교 예정부지가 있다.



대우건설 '기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청약 상담을 받고 있다. /대우건설 제공

/박선옥기자 pso9820@

## 7~9월 전국 아파트 6만1151가구 '집들이'

올해 7~9월 전국적으로 6만1151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한다. 작년 같은 기간 5만9168가구보다 3.4%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7~9월 수도권에서 2만6929가구, 지방에서 3만4222가구가 집들이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월별로는 9월에 가장 많은 2만5012가구가 입주한다. 이어 7월 2만1066가구, 8월 1만5073가구 순이다.

규모별로는 60㎡이하 1만7610가구, 60~85㎡ 3만6874가구, 85㎡ 초과 6667가구로 집계됐다. 85㎡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89.1%를 차지했다.

주체별로는 민간 4만3704가구, 공공 1만7447가구다.

지역별 주요 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시흥 군자 2865가구, 고양 삼송 3567가구, 인천 송도 1861가구, 화성 동탄2 1636가구, 고양 삼송 1677가구, 수원 세류 2682가구가 예정됐다.

지방에서는 부산 강서 1277가구, 여수 웅천 1660가구, 대구 수성 795가구, 세종시 2876가구, 대전 노은3 1255가구, 충남도청이전 2127가구 등이 새 주인을 맞이한다. /박선옥기자

## 금강산리조트 회원권 특별 분양

### 제주도·강원도 고성

주식회사 미봉이 창사 25주년을 맞아 제주도와 강원도 고성에서 휴양별장형 '제주금강산 리조트'와 '금강산 비치리조트'의 회원권을 특별 할인 분양한다.

세계 7대 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제주도의 '제주금강산 리조트'와 강원도 고성 바닷가 백사장변에 들어선 '금강산 비치리조트'는 시끄러운 도시를 탈출해 조용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쉼터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거품을 뺀 착한 분양가를 적용해 실속패밀리형(53㎡) 395만원, 스위트형(99㎡) 580만원, 로얄스위트형(165㎡) 980만원이다. 완납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제주·고성 외 전국 8곳(설악·청평·도고·남원·나주·지리산·경주·부산·울진) 리조트를 정회원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고성 '금강산 비치리조트' 전경.

소유권 등기제 실속형 패밀리 회원권은 선착순 50구좌 마감이다. 또 50명에게는 제주와 고성 리조트 무료 이용권 15매와 고성 비치리조트 해수사우나 이용권 30매를 제공한다.

신청금 입금 순으로 바닷가 객실을 배정 받아 등기를 진행한다. 신청금은 50만원이다. 기업은행 244-025348-04-029 미봉(주)

/박선옥기자 pso9820@

# 블록버스터 출격 대기… 영화株 들썩

**터미네이터·미션임파서블 등 할리우드作 국내 개봉 임박**

**쇼박스, 극비수사 흥행 기대 4거래일째 주가 상승 기록**

**전문가 "메르스 한파 일시적"**



영화 '극비수사'의 투자·배급을 맡은 쇼박스는 흥행 기대감에 4거래일째 주가가 올랐다.



내달 2일 국내에서 개봉하는 할리우드 영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예고편 영상캡처.

'블록버스터의 계절'이 돌아오면서 영화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다.

헐리우드 대작들의 국내 개봉을 앞두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할리우드 영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는 내달 2일 국내에서 개봉한다. 특히 할리우드 스타 아놀드 슈워제너거가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의 국내 개봉을 맞아 3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또 톰 크루즈의 영화 '미션임파서블: 로그네이션'도 4년만에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블록버스터 영화 흥행 경쟁이 메르스 한파까지 이겨낼 기세"라며 "메르스로 인한 영화관객 수 감소는 일시 현상으로 흥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리온그룹계열사인 '쇼박스'는 투자·배급을 맡은 영화 '극비수사'에 대한 흥행 기대감에 4거래일째 상승했다.

쇼박스의 주가는 지난 19일 기준 전일대비 0.97% 오른 8370원에 마감했다. 지난 16일부터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정기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국내에서도 올해 하반기 대작 작품들이 포진해 있어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된다"며 "메르스로 인한 영화 관객 감소는 일시적 현상으로 영화 '극비수사'의 흥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또 "쇼박스는 지난 4월 중국 화이브라더스와 독점 계약 체결로 새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면서 "합작 영화는 올해 하반기 제작에 들어가 내년부터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며 편당 쇼박스의 투자수익이 69억원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그는 "쇼박스 차이나의 실적은 합작 영화의 흥행 성공시 예상을 크게 웃돌 것"이라며 "화이브라더스의 높은 배급과 협상 능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예측했다.

김진성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쇼박스가 배급하는 영화 '극비수사'가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현재 '쥬라기월드'를 제외하면 경쟁작이 눈에 띄지 않아서 흥행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극비수사의 총 제작비는 약 80억원, 손익분기점 관객수는 약 250~260만명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최종 관람객 수를 350만명으로 가정하면 쇼박스의 투자손익은 16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쇼박스는 중국 화이브라더스와 손을 잡고 중국 영화 시장에 진출했는데, 지난달 20일 쇼박스차이나 설립을 완료했다"며 "첫 번째 공동 제작 영화 촬영이 오는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이고, 내년부터 연 2편씩 개봉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62억원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CJ CGV'도 블록버스터 영화 흥행과 중국시장 성장에 따른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이선애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블록버스터 모멘텀은 국내 본사 뿐만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 쪽의 매출까지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연구원도 "국내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캐쉬카우(주수익원)를 바탕으로 중국, 베트남 등 신흥시장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단계"라고 분석했다.

중국 영화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 CGV 역시 공격적인 출점을 가속화하며 1분기말 기준 시장점유율을 2.2%로 확대했다.

그는 "CGV중국은 1분기 11억원 적자에서 2분기 10억원의 흑자를 거두며 손익분기점(BEP)에 도달할 전망"이라며 "2016년 이후부터는 연간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등 본격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권윤구 동부증권 연구원도 "중국이 헐리우드의 공세로 예상보다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CJ CGV에 대한 프리미엄 부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 메르스 엎친 데 그리스 덮쳐 주식형펀드 수익률 '마이너스'

**펀드평가사 지난주 평가 국내 0.35%·해외 2.48% 손실**

국내 주식형펀드가 한 주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메르스 확산 우려와 그리스 구제금융협상 결렬 등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21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는 한 주간 0.35% 손실을 냈다.

소유형 기준 주간 수익률은 중소형주식과 일반주식이 각각 1.50%, 0.42%를 올렸으나, 코스피200인덱스펀드와 배당주식펀드는 각각 -1.06%, -0.20%를 나타냈다.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주식펀드 1734개 중 873개 펀드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코스피 수익률을 웃도는 펀드는 1190개였다.

헬스케어와 중소형주, 화학관련 업종에 투자하는 펀드의 성과가 우수했고, 2분기 부진한 실적 전망에 하락한 현대차 투자 비중이 높은 펀드들이 부진했다.

국내 채권펀드는 중기물 채권금리가 하락한 덕분에 한 주간 0.07%의 성과를 올렸다.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214개 국내채권형 펀드 가운데 214개가 플러스 성과를 냈다.

KIS채권지수(1년 종합) 수익률을 웃도는 펀드는 190개로 집계됐다.

해외 주식펀드도 한 주간 2.48%의 손실을 냈다.

지역별로 러시아주식펀드의 주간 수익률이 1.51%로 가장 높았다.

브라질주식펀드와 남미신흥국주식펀드가 각각 0.88%, 0.59%의 수익을 냈고 동남아주식펀드도 0.35%의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나머지 해외 주식형 펀드들은 중국주식 펀드(-4.29%)와 유럽주식(-1.75%), 일본주식(-1.55%) 등 순으로 손실폭이 컸다. /김민지기자

## 삼성-엘리엇, 보고서 공방… 주가 '안갯속'

<한영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분석>

**엘리엇, 법원에 증거로 제출**

**삼성 "일부만 발췌해 왜곡" 홈페이지 등서 여론전 치열**

**한영 "사전동의 없이 사용" 증거 철회 요청도 변수**




삼성과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공방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한영회계법인이 작성한 삼성물산에 대한 기업가치평가분석 보고서를 엘리엇이 법원 심리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해당 보고서가 이번 공방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삼성과 엘리엇 측은 각각 여론전까지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가 향방은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 심리로 열린 주주총회 소집·결의금지와 자사주처분금지 가처분 심리에서 엘리엇과 삼성은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특히 엘리엇이 이번 심리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한영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분석 보고서는 양측의 공방을 더 크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엘리엇은 19일 법원에서 "국내 4대 대형회계법인에 의뢰해 양사 공정가치를 감정한 결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대 1.6인 것으로 산출됐다. 그런데도 삼성 측이 1대 0.35로 합병비율을 산정한 것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이 아니라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이러한 주장의 출처인 한영의 보고서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가치를 산정하는 회계기준이 각각 달랐고 보고서의 일부 내용만 발췌해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도된 주관이 들어간 것으로 삼성물산을 과대, 제일모직을 과소 평가했다"며 "이 보고서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도 말했다.

보고서를 만든 한영 측은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자료를 사전동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며 보고서의 증거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엘리엇이 증거로 낸 가치평가분석보고서는 인수합병(M&A) 용도가 아니라 일반투자 용도로 제공된 것"이라며 "임의적으로 보고서를 이용한 데 대해 법적 조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합병의 정당성과 합병 비율 산정의 적절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던 만큼 한영회계법인의 보고서가 타당한지에 대한 공방으로 번질 경우, 그 타당성 여부에 따라 양측이 각자 내세웠던 주장 가운데 일방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또 이번 합병뿐 아니라 주가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양측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자사 웹사이트에 자신이 주장하는 합병 관련 설명자료를 연이어 올려놓아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물산 이사회는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직면한 지금 시점이야말로 미래성장과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이라고 판단해 합병을 승인했다"며 합병 후 삼성물산의 주가 상승을 예상했다. 반면 엘리엇은 "제일모직은 수치면에서 삼성물산과는 비교도 안 되는 회사이며, 사업구성 면에서도 합병에 따른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여론전에도 지난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 주가는 6만4600원으로 전일대비 100원 상승했다.

/이정경기자 jkljkl@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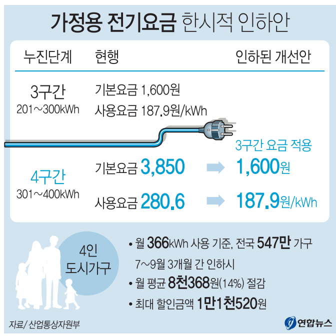
# 7~9월 전기세 월평균 8368원 줄어든다

**주택용 요금 한시적 인하**
**누진 4구간도 3구간 요금 적용**
**4인가구 최대 1만1520원 할인**

가정용 전기요금이 7~9월 한시 인하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8월 1일부터 1년간 할인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제도 적용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지난 18일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기 과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여름철 냉방 수




요 급증가에 전기요금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가 위치한 누진단계 4구간(월 301~400kWh)에는 많은 전기 소비자들이 몰려 있다. 평소 2~3구간(월 101~300kWh)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여름철 냉방으로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해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7~9월 3개월 동안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국 647만가구에 1300억원의 전기요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으로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최대 할인금액은 1만1520원에 이를 전망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기존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9만5000가구)와 복지부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가구(77만가구)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뿌리기업을 포함한 중소 산업체 8만1000여 곳에 대해 8월 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토요일 전기요금 산정은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의 약 1/2 수준)을 적용한다. 요금 계산 방식이 이같이 바뀔 경우 중소 산업체의 비용 부담 절감액은 총 3540억원이다. 업체당 연평균 437만원(2.6%↓)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여름·겨울철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제를 도입해 가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요금 분납제가 도입되면 여름·겨울 기간 직전 월(6월, 11월)에 비해 전기 요금이 배 이상 늘어나면 최대 6개월까지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게 된다.

한편 한전을 포함한 전력 공기업 7개사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24개 핵심 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 삼성전자, 무선 360 오디오로 유럽 '귀' 홀린다

**英서 AV제품 단독출시 행사**
**佛·伊 등 전유럽 공략 시동**

삼성전자가 무선 360 오디오(사진)를 앞세워 유럽 사운드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삼성전자는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빅토리아 하우스에서 주요 거래선과 전문 미디어 등 1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운드 변화의 물결'이라는 콘셉트로 무선360 오디오 출시 행사를 열었다.

삼성전자가 AV 제품 단독으로 글로벌 출시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는 무지향성 사운드를 360도로 균일하게 출력하는 무선 360 오디오만의 청각적 특징을 참석



자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시각화한 공간과 이벤트로 구성됐다.

유명 DJ인 '고르곤 시티'가 무선 360 오디오를 활용한 DJ 쇼를 펼쳤고 빛을 이용한 설치 미술, 음향 아트를 전문으로 하는 '아티잔'이 제작한 '사운드의 물결을 느낀다'라는 주제의 영상을 상영하여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가이 킨넬 삼성전자 영국 법인 상무는 "삼성전자는 영국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 전역으로 무선 360 오디오의 혁신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지 전문 매체들의 호평도 이어졌다. 영국 IT 전문 매체 '트러스티드 리뷰'는 스탠드형 무선 360 오디오 R7모델에 대해 "삼성이 R7으로 제대로 한방 보여줬다. 스타일리시하고 혁신적이며 훌륭한 사운드의 스피커는 멀티룸 오디오의 신기원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10점 만점을 줬다. 'AV포럼' 도 이동형 'R6 포터블'에 대해 10점 만점에 9점을 부여했다.

한편 삼성전자가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한 삼성 오디오랩의 첫 작품인 무선 360 오디오는 독자적인 '링 라디에이터 기술'과 새로운 기준의 음향 기술을 탑재해 전 방향으로 균일한 사운드를 방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한진기자

## 삼성 디지털프라자 홍대점, 공연 봇물

**오픈 1주년 문화 마케팅**
**음악회 등 지역 맞춤 이벤트**

삼성전자는 신개념 복합문화 공간인 디지털프라자 홍대점 오픈 1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 등으로 문화마케팅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장 외부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는 인디밴드가 공연하고, 매장 내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리는 등 '문화의 메카'인 홍대 지역 상권 특성에 맞춘 이벤트가 펼쳐진다.

또 매장에 방문한 젊은 연인들을 위해 결혼 서약이나 기념일 문구 등을 캘리그라피 작품으로 제공한다. 고객에게 캐리커쳐를 그려주는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한다.




삼성전자 모델이 19일 신개념 복합문화 공간인 삼성 디지털프라자 홍대점에서 오픈 1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이밖에 디지털프라자 홍대점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어벤저스 스테이션 전시회', '뮤지컬 점프'를 비롯한 다양한 전시와 공연 티켓과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어벤저스 캐릭터 상품 등이 구매 금액에 따라 사은품으로 제공된다.

이번 문화마케팅 행사는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된다. /조한진기자

## LG G4 '셀피 릴레이' 기네스북 기록 경신

LG전자는 'LG G4' 멕시코 출시를 기념해 '멕시코시티'의 핵심 명소 '차풀테펙'에서 대규모 이색 체험행사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에서 LG전자는 단 한대의 'G4' 전면카메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가장 긴 셀피(스스로 찍은 사진) 릴레이'의 기존 기록에 도전했다.

이 기록은 한 장소에서 스마트폰 한대 만으로 셀피를 찍고 순서대로 바통을 넘겨 얼마나 많이 연속촬영 하느냐가 관건이다. 기존 기록은 531장으로 2015년 5월 미국에서 등재된 바 있다.

3000여명의 멕시코 시민들은 약 2시간에 걸쳐 746장의 셀피를 연속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이 행사는 기네스북 협회 감독관의 현장 감독하에 이뤄졌고, 기존 기네스북 기록 경신에 성공했다.

LG전자는 단 한대의 'G4'로




19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차풀테펙'에서 시민 3000여명이 'LG G4' 이색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LG전자 제공

**멕시코 시민 3000명 참여… 셀피 746장 연속 촬영**

746장의 셀피 연속촬영에 성공함으로써 △800만 고화소 전면카메라와 카메라 사용자경험(UX)로 쉽고 간편한 고화질사진 촬영과 △3000mAh 대용량 배터리로 오랫동안 별다른 에러사항 없이 사용 가능함을 현장에 모인 소비자와 미디어들에게 직접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고화소 전면카메라로 촬영된 셀피 사진들은 대규모 사진작품으로도 별도 제작돼 차후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철훈 LG전자 MC사업본부 마케팅커뮤니케이션FD 상무는 "이번 행사는 소비자의 즐거운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G4'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현지 마케팅을 강화해 'G4' 판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한진기자

## 한눈에 보는 '540만년 전 지구'

**삼성전자-英 자연사박물관**
**갤럭시S6·기어VR로 체험**

삼성전자가 영국 국립 자연사 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과 협력해 고대 해양 생태계를 체험하는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영국 런던의 국립 자연사 박물관은 '갤럭시 S6'와 가상 현실 헤드셋 '기어 VR'을 통해 540만년 전 지구 최초의 해양 생태계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데이비드 아텐보로의 최초의 생'이라는 제목으로 약 15분간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은 국립 자연사 박물관의 최신 연구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데이비드 아텐보로 경은 영국의 유명 생물학자이자 방송인으로 15분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내레이션을 담당했다.

관람객들은 기어 VR을 통해 지구 최초의 고대 바다 속을 다이빙하는 경험과 더불어 멸종 변종 생물인 오파비니아, 무시 무시하게 생긴 아노말로카리스, 가시 벌레의 모습을 가진 할루시제니아 등 다양한 지구 최초의 해양 생물들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최근 열린 오프닝 행사에는 영국 문화부 장관, 국립 자연사 박물관장, 현지 미디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을 체험한 에드 베이제이 영국 문화부 장관은 "콘텐츠와 경험이 너무 흥미진진해 종료 되는 것이 너무 아쉬울 정도"라며 "특히 교육적인 내용이 이렇게 흥미롭게 전달 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 BMW vs 아우디, 獨 소형해치백 정면 대결

<뉴 118d> <뉴 A1>

### 2030 겨냥 나란히 선봬
### 주행성능은 뉴 118d
### 가격경쟁력 뉴 A1 앞서

| BMW 뉴 118d 스포츠 | VS | 뉴 아우디 A1 30 TDI / A1 스포트백 30 TDI |
|---|---|---|
| 4기통 트윈파워 터보 디젤 | 엔진 | 4기통 디젤 직분사 터보차저 |
| 8단 스텝트로닉 | 변속기 | 7단 S트로닉 |
| 1995cc | 배기량 | 1598cc |
| 150마력/4000rpm | 최고출력 | 116마력/3500~3800rpm |
| 32.7kg·m/1500~3000rpm | 최대토크 | 25.5kg·m/1500~3200rpm |
| 212km/h | 최고속도 | 200km/h |
| 8.1초 | 제로백 | 9.4초 / 9.5초 |
| 17.4km/l (도심 15.7/고속도로 19.9) | 복합연비 | 16.1km/l (도심 14.8/고속도로 17.9) / 16.0km/l (도심 14.7/고속도로 17.8) |
| 3890만~3950만원 | 가격 | 3270만~3720만원 |

BMW와 아우디가 개성 있는 첫 차를 구입하려는 20~30대를 겨냥해 나란히 소형 해치백을 선보였다.

입문용 수입차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인 주행성능은 BMW 뉴 118d가, 가격경쟁력 측면에선 아우디 뉴 A1이 앞서는 모양새다.

21일 각사에 따르면 뉴 118d는 2세대 부분변경 모델로 후륜구동 방식이다. BMW 이피션트 다이내믹스 기술이 적용된 신형 4기통 디젤 엔진을 장착했다.

BMW 트윈파워 터보 기술이 적용된 이 엔진은 최고출력 150마력, 최대토크 32.7kg·m의 힘을 낸다.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제로백)는 8.1초가 걸린다.

연비는 복합 17.4km/ℓ(고속 19.9 km/ℓ, 도심: 15.7km/ℓ) 수준이다.

내부 효율성을 개선한 8단 스텝트로닉 변속기는 기어 단수가 많아 기어를 변경할 때 엔진 회전 수 상승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즉각적이고 역동적인 질주부터 편안한 순항에 이르는 넓은 범위의 운전 스타일에 맞춰 작동한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뉴 118d에는 타이어의 안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출시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뉴 아우디 A1은 부분변경을 통해 성능과 디자인을 개선한 모델이다.

1.6 TDI 디젤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116마력, 최대토크 25.5kg·m의 힘을 낸다.

7단 S트로닉 자동변속기는 변속시간이 짧아 동력 손실이 적고 직결감이 좋다는 특징이 있다.

뉴 아우디 A1은 3도어 모델인 '뉴 아우디 A1 30 TDI'와 5도어 모델인 '뉴 아우디 A1 스포트백 30 TDI'로 나뉜다.

제로백 가속성능은 9.4초(스포트백 9.5초) 수준이다.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6.1km/ℓ(스포트백 모델 16km/ℓ)다.

뉴 118d와 A1의 편의사항 역시 비교해 볼 부분이다.

뉴 118d에 기본 채택한 옵션은 iDrive 시스템, 6.5인치 디스플레이가 있다.

또 발광다이오드(LED) 헤드라이트와 전후방 주차센서, 전동식 글라스 선루프, 앞좌석 전동·열선 스포츠시트, 17인치 휠 등을 적용했다.

뉴 아우디 모든 모델에는 제논 헤드라이트와 LED 테일라이트, 앞좌석 스포츠시트, 6.5인치 내비게이션 등을 기본으로 장착했다.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역시 기본 사양으로 적용해 운전자가 엔진 반응속도, 기어변속 타이밍, 스티어링 감도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다이내믹, 이피션시, 오토의 3가지 운전 모드를 통해 다양한 운전의 재미를 더한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부가세 포함 뉴 118d 스포츠 라인의 가격은 3890만원이다.

17인치 경합금 휠과 BMW 커넥티드 드라이브가 포함된 뉴 118d 스포츠 런치 패키지는 3950만원이다.

뉴 아우디 A1의 가격은 트림별로 3270만원부터 3720만원까지 책정됐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 기아차, 신형 K5 사전계약 시동… 하반기 신차경쟁 점화

### 오늘부터 MX·SX 2종 계약
### 현대·한국지엠도 출시 예고
### PHEV·경차 등 선택폭 넓어

기아자동차의 신형 K5(사진) 사전계약을 필두로 완성차 업체들의 하반기 신차 출시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아자동차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능과 동승석 위치 조절 장치가 탑재된 신형 K5의 사전계약을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형 K5는 '모던익스트림(MX)'과 '스포티익스트림(SX)'의 2가지 모델이 출시된다. 1.6 터보 모델의 경우 최고출력 180마력, 최대토크 27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5가지의 파워트레인과 6개의 외장컬러는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혔다. 가격은 2235만~3145만원 대에 책정됐다. 추가로 기아차는 신형 K5의 하이브리드(HEV) 모델은 올해 4분기,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모델은 내년 초에 선보여 총 7개의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완성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신형 K7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오는 9월에는 기아차의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인 신형 스포티지가 출시된다. 6단 수동 변속기와 더블클러치 포함된 새로운 7단 변속기가 적용된다. 보행자 안전장치인 '액티브 후드 시스템' 등의 편의사양이 적용될 예정이다. 가격은 현재 미정이다.

한국지엠은 내달 1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신형 스파크 신차 발표회를 열고 하반기 공략에 나선다. 신형 스파크는 확장된 휠 베이스와 36㎜ 낮은 전고를 통해 날렵하고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을 구현해 주행 효율이 개선됐다. 또 스파크의 강점인 여유로운 실내 공간까지 더해져 기아차 모닝과 맞붙는다.

한국지엠은 오는 8월에는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대형 세단 임팔라도 투입한다. 10월에는 SUV 트랙스 가솔린 모델 인기에 힘입어 디젤을 추가 투입한다.

소형 SUV 돌풍의 주인공, 쌍용자동차의 티볼리는 내달 디젤모델 추가 투입을 앞두고 있다. 티볼리 디젤모델은 연비는 이륜구동 복합 15.3km/ℓ, 사륜구동은 14.5km/ℓ다. 티볼리 디젤 모델 가격은 가솔린 모델(1635만~2347만원)보다 200만원 가량 오를 예정이다. 티볼리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내수 1만4894대, 수출 6072대 등 총 2만966대가 판매됐다.

현대자동차는 내달 LF쏘나타 출시를 앞두고 있다. 현대차는 내, 외관과 성능이 부분 변경된 모델에 7단 더블클러치 변속기(DCT)등을 적용해 중형 세단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또 쏘나타 PHEV까지 내달 출시되면 세단 라인업은 더 확장된다.

9월에는 현대차 아반떼가 완전변경된 6세대 모델로 출시된다. 엔진은 1.4ℓ터보엔진과 1.6ℓGDI 가솔린, 1.6ℓ 디젤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변속기도 7단 DCT가 적용된다. 국산차 중 처음으로 누적 1000만대 판매를 돌파한 아반떼로 현대차는 하반기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다.

/정용기기자 yonggi@

# 두산重 사업부문장, 협력사 동반성장 진두지휘

두산중공업은 올해부터 협력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업부문장이 동반성장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21일 두산중공업은 그동안 최고경영진 위주로 진행되던 동반성장 활동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각 BG장들이 직접 협력사를 찾아가 애로 사항을 들어서 해소 방법을 찾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두산중공업 내 6개 사업부문장이 올해 방문하게 될 사업장은 예년에 비해 10배가량 많은 총 40여 개가 될 전망이다.

부문장들은 이 가운데 12개 협력사를 이미 상반기에 방문해 협력사 경영진 뿐 아니라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개선과제를 찾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BG장들의 개선과제는 최고경영진이 직접 점검을 하고 최고경영진이 협력사를 다시 방문해 개선된 사항을 확인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의 동반성장과 구매를 총괄하는 김명우 관리부문 사장은 지난주 경남 김해의 에이치케이이금속과 부산의 화신볼트산업을 방문해 협력사들이 제기한 △원자력 품질보증교육 시행 △신속한 단가계약 등 일부 요청사항을 즉석에서 수용했다.

김 사장은 "우수 협력사들이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매출을 확대할 경우, 지역의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자금과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화신볼트산업을 방문한 김명우 두산중공업 관리부문 사장(가운데)이 생산현장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두산중공업 제공



### 현대로템
### 이집트서 전동차 운행 개시
### 계획보다 4주 앞당겨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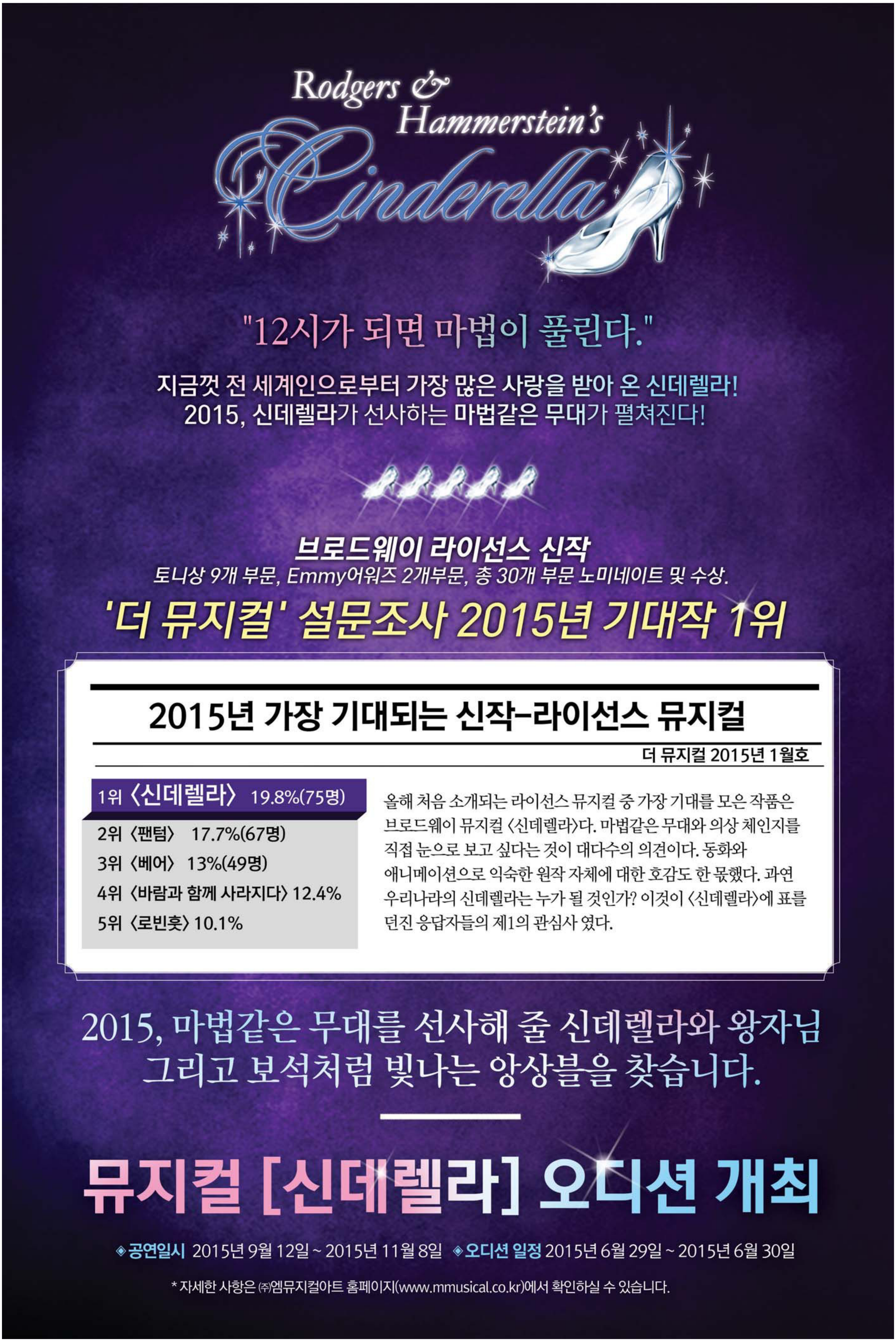
현대로템은 이집트 카이로에 납품한 전동차가 영업운전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2012년 12월 카이로 지하철 1호선에 투입될 전동차 180량 차량의 제작사로 선정됐다. 창원공장에서 제작해 지난 3월 카이로에 도착한 9량의 전동차는 이집트에서 각종 성능시험을 통과했다. 이에 이집트 터널청은 영업운행 시기를 계획보다 4주 앞당겨 18일부터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로템은 사업 수주 이후 현지 파트너사인 세마프와 협력을 토대로 안정적인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쏟았다. 창원공장에서 제작한 전동차 외 현지에 제작한 전동차 1편성의 공장출고를 2개월 앞당기기도 했다.

카이로 전동차 180량 프로젝트는 현대로템이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따낸 사업이다. 수주금액 규모는 3763억원 규모다. 현대로템은 2012년 사업 수주 당시 이집트 전동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 업체를 제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로템은 이번 납품차량의 기술과 성능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카이로 2, 3, 5호선 전동차 수주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소리기자 10sound@


Rodgers & Hammerstein's
Cinderella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린다."
지금껏 전 세계인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신데렐라!
2015, 신데렐라가 선사하는 마법같은 무대가 펼쳐진다!
브로드웨이 라이선스 신작
토니상 9개 부문, Emmy어워즈 2개부문, 총 30개 부문 노미네이트 및 수상.
'더 뮤지컬' 설문조사 2015년 기대작 1위
2015년 가장 기대되는 신작-라이선스 뮤지컬
더 뮤지컬 2015년 1월호
1위 〈신데렐라〉 19.8%(75명)
2위 〈팬텀〉 17.7%(67명)
3위 〈베어〉 13%(49명)
4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2.4%
5위 〈로빈훗〉 10.1%
올해 처음 소개되는 라이선스 뮤지컬 중 가장 기대를 모은 작품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신데렐라〉다. 마법같은 무대와 의상 체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동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익숙한 원작 자체에 대한 호감도 한 몫했다. 과연 우리나라의 신데렐라는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이 〈신데렐라〉에 표를 던진 응답자들의 제1의 관심사 였다.
2015, 마법같은 무대를 선사해 줄 신데렐라와 왕자님
그리고 보석처럼 빛나는 앙상블을 찾습니다.
뮤지컬 [신데렐라] 오디션 개최
◈공연일시 2015년 9월 12일 ~ 2015년 11월 8일 ◈오디션 일정 2015년 6월 29일 ~ 2015년 6월 30일
* 자세한 사항은 ㈜엠뮤지컬아트 홈페이지(www.mmusical.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 넘보는 IT 강자들

### 다음카카오·SK C&C 등 출사표…금산분리 빗장 푸나
### 野일부 금산분리 완화 반대…국회 심의 과정 진통 예상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업체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이 발표되었다. 연내 인가를 앞두고 다음카카오·SK C&C·인터파크 등 국내 IT업계 강자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21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이 급물쌀을 타고있다. 이 방안에는 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와 최저자본금 기준을 완화해 IT기업 등 혁신적 경영기업을 참여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는 일정표를 제시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업의 은행 소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혔던 금산분리를 예외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갖지 못하게 해서 기업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 현행 은행법의 금산분리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는 이런 제한을 5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단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등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우선 연내에 1~2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다음카카오가 가장 적극적이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다음카카오의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허가를 신청한 타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사안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소비자에게 더 나은 모바일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하나은행 등과 접촉하고 다른 은행과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금융은 전문 영역인 만큼 단독 설립보다는 합작이나 공동투자 형태가 될 것"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면 단순 대출이나 송금 뿐 아니라 할부금융, 투자 등의 영역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현행 '카카오페이'와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도 개편한다. 현재 온라인 결제만 가능한 카카오페이에 오프라인 결제를 추가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뿐 아니라 지불결제사업도 개선해 핀테크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SK C&C와 LG CNS 등 금융권 전산망 사업을 책임진 SI기업들은 각 사의 역량을 기반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플랫폼을 구축해 설립 희망 기업들과의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SK C&C는 현재 은행 및 비은행권 등 총 5곳과 인터넷 전문 은행의 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기열 SK C&C 전략사업부문장(전무)은 "인터넷 전문 은행은 단순한 금융 정보 외에 자산 관리나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을 기반으로 한 포털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설립되기 위해 은행 당사자와 핀테크 사업자, IT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는데 SK C&C는 IT 인프라를 맡겠다는 계획이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 SKT "가계 살림도 스마트하게"

### '돈버는 가계부' 출시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스마트한 가계 살림을 돕는 '돈버는 가계부'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돈버는 가계부는 ▲지출내역 자동등록 ▲다양한 통계 ▲비교가계부 ▲공유가계부 등 편의기능을 제공해 자산관리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가계부 어플리케이션(앱)이다.

돈버는 가계부는 사용자가 일일이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카드 결제·은행 거래 내역 SMS와 현금영수증 사이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자동으로 지출내역을 입력한다. 특히 'T114'와 'T map'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지출내역의 업종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돈 버는 가계부만의 강점이다.

또한 돈버는 가계부는 가계부 관리내역을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수입, 지출 통계는 물론, 적금, 예금, 펀드, 보험, 대출 등 전체 자산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사용자가 가계 살림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항목별 지출 비율, 예산 대비 지출비율, 목표 달성률 등 다양한 통계를 홈 화면에서 제공한다.

'비교가계부'는 사용자가 연령, 가구원수, 월소득, 맞벌이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통계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슷한 그룹의 항목별 지출 내역과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다. 다른 가정과의 비교를 통해 가계 소비 패턴이 적정한지 지속적으로 체크해볼 수 있다.

돈버는 가계부 앱은 통신사 관계없이 안드로이드 OS 4.0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T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문경기자

## SKT, 대·중기 협력 창조경제 첫 모범사례 선봬

### 크레모텍에 연구개발 지원
### 'UO스마트빔 레이저' 출시
### 국내·해외시장서 호응 커




SK텔레콤과 협력 스타트업 크레모텍의 구성원들이 지난달 출시한 'UO스마트빔 레이저'를 들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SK그룹이 벤처기업과 특허를 공유하며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만드는 창조경제형 상생협력 모델을 선보였다.

SK텔레콤(대표이사 장동현)은 21일 지난달 25일 출시한 'UO스마트빔 레이저'가 출시 한 달도 안돼 판매와 선주문 물량이 3만 대를 넘어서는 등 국내 소비자들은 물론 해외 시장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UO 스마트빔 레이저'는 SK 텔레콤이 상생경영 차원에서 지원하는 '브라보 리스타트' 1기 출신의 벤처 협력기업 크레모텍에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무상 제공하고 공동 개발한 제품이다.

SK텔레콤은 우선 크레모텍이 필요로 하는 특허 9건을 제공, 광학기술이 휴대장치 등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또 SK텔레콤의 R&D기관인 종합기술원의 응용기술 전문가를 동원, 공동 연구에 돌입했다.

특허 공유에 기반한 2년여간의 공동연구로 양사는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레이저 광원에 기반한 빔 프로젝트를 개발했다. 안전 1등급의 HD고화질 해상도를 가진 차세대 기술이다. 또 공동연구 과정에서 확보한 3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회사의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 인큐베이팅을 시작할 때 2명에 불과했던 직원 수는 현재 40명까지 늘어났으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는 내년(2016년) 매출목표는 1000억원으로 높여잡았다. /정문경기자




**KT "강남·신촌역에서 GS 샵, 우리은행 쿠폰 쏜다"** KT(대표 황창규)가 '개방형 기가 비콘' 사업의 일환으로 제휴사 앱 이용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블루투스 쿠폰 이벤트'를 실시한다. KT의 개방형 기가 비콘은 주요 상권 실내·외에 블루투스 기술 기반의 무선통신 장치인 비콘을 설치하고, '기가 비콘 존'에 있는 제휴사 앱 설치 고객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마케팅 서비스다. /KT 제공

## LGU+ "HD영화 6초면 다운 OK"

### LTE보다 28배 빠른 '2기가 멀티패스' 연내 적용

LG유플러스가 데이터 전송 속도가 기존 LTE보다 28배 수준으로 빨라지고, HD급 영화 한편을 단 6초면 다운받을 수 있는 2기가 멀티패스를 연내 적용한다.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LTE와 와이파이를 묶어 최대 1.17Gbps 속도를 낼 수 있는 '기가 멀티패스'를 6월 중 상용화하고, 이의 속도를 2배 수준으로 높여 최대 2기가(Giga)bps 이상의 속도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기술을 연내 네트워크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2Gbps는 이론적으로 HD급 영화 1편(약 1.4GB)을 6초에, 초고화질(UHD급) 영화 1편(약 18GB)을 1분12초만에 내려 받을 수 있는 속도다. 음원(약 5MB)의 경우 1초에 51곡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스마트폰으로 가상현실 게임, 초고화질 UHD 등 각종 대용량 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선 LTE 속도를 기존 대비 약 30% 이상 높여주는 '다운링크 256쾀' 기술의 테스트를 이달 중 마치고 3분기 중 상용망에 적용할 계획이다. 최대 300Mbps를 제공하는 3밴드 LTE-A 서비스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390Mbps까지 다운로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와이파이 대역에 '4X4 MIMO' 기술을 적용해 기가 와이파이 서비스 속도도 대폭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최대 866Mbps의 기가 와이파이 속도를 이론상 최대 2배까지 향상시킬 수 있어 1.73Gbps 속도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정문경기자

# 제2롯데월드 왜 이러나… 15번째 안전사고

### 50여개 점포 가스 중단돼 두 달 만에 사고 3건 발생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안전강화 정책 무색 지적

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롯데월드몰)의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일 오후 제2롯데월드 5층과 6층 식당가에서는 가스 공급 압력을 조절하는 센서가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오후 2시께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50여 개의 점포에 대한 가스 공급이 중단됐다.

시공사인 롯데물산(대표 노병용) 측은 가스공급 압력조절기에서 이상 신호가 잡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가스 누출 등의 추가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20일 발생한 가스 공급 중단은 사전에 가스가 누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자사에서 먼저 대응한 것"이라면서 "기계적인 결함에 따른 것 외에 특별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난해 10월과 11월 발생한 천장과 내부 균열로 가스 배관에 문제가 생겨 가스 압력이 높아지면서 센서가 오작동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일러 업계 한 관계자는 "지진이나 균열이 발생하면 안전 장치가 작동해 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2롯데월드는 2013년 착공 이후 거푸집 붕괴, 컨테이너 화재, 배관 이음매 폭발 등 이달까지 1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했지만 여전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첫 사고는 2013년 6월 43층에서 거푸집 장비가 무너져 인부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것이었다. 같은 해 10월 1일 11층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쇠파이프가 떨어져 행인 1명이 다쳤다.

이듬해인 2014년 2월 16일에는 47층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났고, 4월 8일에는 12층의 배관 이음매 폭발로 인부 1명이 사망했다.

10월 27일에는 식당가인 5층과 6층 바닥의 균열이 발견됐고, 사흘 후인 10월 30일에는 4층에서 금속 구조물이 떨어져 직원 1명이 다쳤다. 11월 9일에는 롯데시네마 14관(8층)에서 영화 상영 중 스크린 양쪽과 좌석이 여러 차례 흔들려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 달 후인 12월 9일에는 수족관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17일에는 8층 콘서트홀 건축 공사에서 재료운반이나 공사 인부들의 통로·작업 발판으로 쓰이는 비계 해제 작업 중 인부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열흘 후인 12월 27일에는 잠실역 11번 출구 인근으로 난 제2롯데월드몰 1층 좌측부 출입문 가운데 하나가 분리되면서 쇼핑몰을 나가던 행인 뒤로 문이 쓰러져 머리와 어깨 부분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2월 15일에는 롯데월드몰 쇼핑몰 1층 반고흐 카페 매장 옆 8번 출입문이 떨어지는 사고가 생겼다.

지난 5월 8일 국민안전처와 서울시 전문가 자문회의로부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제2롯데월드몰 재개장과 공사 재개를 승인한 지 일주일만인 5월 15일에는 쇼핑몰동 8층 공연장에서 전기작업 중 합선으로 작업자 2명이 최대 2도의 화상을 입었다. 6월 8일에는 엔터동 지하2층 롯데마트 화재로 70여 명이 대피했다.

제2롯데월드에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시민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롯데물산이 재개장 허가를 받은 당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2회 경고 후 퇴출하던 제도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변경하고, 100여 명의 안전 요원을 담당 구역별로 확대 배치해 실명제로 안전사고의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안전 대책도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의 날선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허xxx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적용해보면 붕괴가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하인리히법칙은 대형 안전사고 1건이 일어나려면 동일한 원인의 경미한 사고가 29건, 위험에 노출되는 경험이 300건 정도가 이미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누리꾼인 이xx 씨는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죽음의 월드 데드월드 다이월드"라고 비꼬았다.

/박상길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제2롯데월드의 사고일지>

- ▲ 2013년 6월 25일 = 43층에서 거푸집 장비 무너져 인부 1명 사망, 5명 부상
- ▲ 2013년 10월 1일 = 11층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쇠파이프 떨어져 행인 1명 부상
- ▲ 2014년 2월 16일 = 47층 컨테이너 화재
- ▲ 2014년 4월 8일 = 12층 배관 이음매 폭발로 인부 1명 사망
- ▲ 2014년 10월 27일 = 롯데월드몰 5·6층 바닥 균열 발견
- ▲ 2014년 10월 30일 = 롯데월드몰 4층 구조물 떨어져 직원 1명 부상
- ▲ 2014년 11월 4일 = 롯데면세점 천장·애비뉴엘 5층 바닥 균열 발견
- ▲ 2014년 11월 9일 = 롯데시네마 14관 스크린·좌석 진동…일부 관객 대피 소동
- ▲ 2014년 12월 9일 = 아쿠아리움 수조 균열로 누수
- ▲ 2014년 12월 16일 = 롯데월드몰 8층 콘서트홀 비계 해체작업 중 인부 1명 추락사망
- ▲ 2014년 12월 27일 = 롯데월드몰 1층 좌측 출입문 떨어져 이용객 1명 부상
- ▲ 2015년 2월 15일 = 롯데월드몰 쇼핑몰 1층 8번 출입문 이용객 덮쳐…피해없어
- ▲ 2015년 5월 15일 = 쇼핑몰동 8층 전기작업 중 합선 작업자 2명 화상
- ▲ 2015년 6월 8일 = 엔터동 지하2층 롯데마트 화재로 70여명 대피
- ▲ 2015년 6월 20일 = 롯데월드몰 5층 · 6층 식당가 1시간30분간 가스공급 중단

## 관세청, 면세점 입찰 재벌 밀어주기?

### 자본력 위주로 평가 등 심사 기준·배점 방식 변경 주관적 평가 점수 공개 거부

관세청(청장 김낙회·사진)이 7월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심사 기준을 변경해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서울 시내면세점 공고가 있기 전인 지난 4월 관세청이 면세점 선정 기준을 바꿔 시설·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관리능력의 배점을 낮추고 자본력을 평가하는 경영능력 배점을 높여 재벌기업에 유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월 제주 면세점 특허기간 만료(3월 21일)에 따른 면세점 후속 사업자로 신라와 부영을 탈락시켰다. 롯데면세점을 선정할 당시



5가지 평가범주 가운데 '면세점 관리능력'은 30%, '운영인의 경영능력'은 25%를 할당했다. 나머지 평가 기준은 관광 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15%, 사회 공헌도 15%, 사회환원과 상생협력 15%다.

하지만 롯데면세점 선정 직후 심사기준을 변경해 관리 능력을 25%로 낮추고 경영능력을 30%로 키웠다. 배점 변경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2월 롯데면세점을 재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평가점수의 '총점'만을 공개하고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세부 항목 점수 공개는 거부해 지적을 받았다.

홍 의원은 "(세부 항목 점수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이 유리한 세부항목에 유리한 점수를 줘서 사실상 대기업에게 유리하도록 평가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제주 면세점 평가결과 총점은 롯데가 84.7점, 신라가 82.79점, 부영은 82.32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일까지 서울 시내 면세점입찰을 신청한 중견기업 중 '연결 재무제표' 기준 중견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지적됐다.

'보세판매장의 특허비율' 시행령 제192조2항은 중견기업 충족요건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일 것 △자산총액이 1조원 미만일 것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자산과 매출의 기준을 '개별 기업 재무제표'로 할 것인지 '연결 재무제표'로 할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김성현기자 minus@




**마더케어, 영유아 미용 용품 '그루밍세트' 출시** 21일 홈플러스 인천작전점 마더케어 매장에서 고객들이 '그루밍 세트'를 선보보였다. 그루밍 세트는 영국 영유아 전문 브랜드 마더케어가 출시한 영유아 미용 용품으로 빗과 브러쉬, 미용가위와 손톱깍기로 구성돼 있다.

/홈플러스제공

## 상반기 유통 키워드는 'STAND'

롯데마트는 올해 상반기 유통업계 키워드를 'STAND'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STAND는 '경기 침체 장기화에 업체마다 경쟁력 강화 노력(Sink)', '온-오프라인 간 기존 고유 영역 초월해 경계선 없는 전쟁 가속(Transcend)', '국내 대신 해외로 적극 진출(Abroad)', '백수오 사태, 메르스 확산 등으로 불안 심리 증대(Nervous)', '면세점 열풍에 허가 얻기 위한 경쟁 치열(Duty-free)'을 의미한다.

/김보라기자 bora6693@




**디아지오 '인저 더블유 아이스' 가정용 출시** 디아지오코리아(대표 조길수)가 35도 저도 스피릿드링크 '윈저 더블유 아이스'의 가정용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디아지오 측은 유통채널을 확대하면서 호텔이나, 바와 같은 중간 채널을 건너뛰고 대형 할인점 등 가정용 시장으로 확장하는 이유에 대해 소비자의 '직접 소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디아지오코리아 제공

## 롯데百, 국내 최대 영패션 매장 오픈

### 잠실점에 1500평 규모 '영유니크'관 개설

롯데백화점(대표 이원준)은 오는 30일 서울 잠실점에 '영유니크'(Young Uni-Q)관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1500평 규모의 이 매장에는 이스트쿤스트·인플럭스·프리템포·엠폴햄·FRJ 등 기존 브랜드 11개와 +SQ·4SUS·RAG·DC 등 신규 브랜드 29개가 들어선다.

해외브랜드인 아메리칸 이글도 본점 영플라자에 이어 국내서 두 번째로 다음 달 중순 영유니크관에 매장을 연다.

프리템포는 인기 디자이너의 브랜드 상품으로 구성된 멀티 컨셉스토어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을 겨냥한 영패션 브랜드다. 미국을 대표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브랜드인 DC는 세계 90여개 국에 진출한 세계적인 브랜드로 이번에 우리나라에 첫 매장을 연다. /김보라기자 bora6693

## 이랜드, 中 최대규모 장애인기금 조성

### 매년 수익의 10% 사회기부

이랜드그룹(회장 박성수)은 지난 19일 중국 현지법인 중국이랜드와 중국장애인기금회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랜드 장애인 전용 기금 설립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국이랜드는 앞으로 5년동안 이 기금에 108억원(6000원 위안)을 기부할 계획이다. 조성되는 기금은 중국 기업과 외자 기업을 포함해서 기업이 진행하는 장애인 지원 단일 기금으로서는 최대 규모다. 협약식 기금으로 중증 장애인 5000명과 장애 아동 5000명 등 1만여 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게된다. /김보라기자 bora6693@

## G마켓 '네파 브랜드 위크' 최대 90% 할인

G마켓은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의 입점을 기념해 28일까지 '네파 브랜드위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스다운·재킷·바지 등 다양한 네파 블랙라벨의 역시즌 상품을 선보였다.네파 블랙라벨은 외부 온도를 스스로 감지하는 자동온도센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라인이다. 짚티와 베스트로 구성된 여성 윈드프로 티셔츠를 기존 판매가보다 90% 저렴한 4만2000원에 판매한다.

또 방수재킷과 다운이너로 구성된 남성용 애드윈씨 체인지 구스다운 재킷을 기존 판매가 보다 81% 저렴한 32만3000원에 선보였다. 여성용 쥬리아 구스다운 재킷도 80% 할인해 24만원에 판매한다.

## 현대H몰 '물에 뜨는 블루투스 스피커' 론칭

현대백화점그룹(회장 정지선)의 온라인 쇼핑몰 현대H몰은 22일부터 '몬스터 슈퍼스타 백플로트 블루투스 스피커'(이하 몬스터 슈퍼스타)를 500대 한정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몬스터 슈퍼스타(가격 24만9000원)는 블루투스 스피커에 방송 기능과 물에 뜨는 아이디어가 더해진 것으로 물놀이, 야외활동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김보라기자 bora6693@

# 유자 vs 자몽, 승자는?

### 불 붙은 과즙 소주 시장
### 여성·젊은층에 인기 높아

### 롯데 이어 하이트도 진출
### 과즙시장 경쟁 본격 가세




롯데주류의 '순하리 처음처럼', 하이트진로의 '자몽에 이슬', 무학의 '좋은데이 컬러 시리즈'.

저도주 과즙 소주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롯데주류의 '순하리 처음처럼(순하리)'이 인기를 얻자 경쟁업체들이 줄지어 과즙소주를 내놓고 있다. 소주 업계 1위 하이트진로도 '자몽에 이슬(자몽에)'을 출시하고 시장에 본격 가세했다.

과즙소주는 소주에 유자, 자몽 등 각종 과즙을 넣은 것으로 주종이 '리큐르'로 분류된다. 알코올 도수가 일반 소주 17도보다 낮은 13~14도로 독한 술을 선호하지 않는 여성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당초 과즙 소주를 출시할 계획이 없었다. 순하리가 주류계의 허니버터칩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고 있는 속에서도 하이트진로는 잠깐의 유행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며 20.1도 '참이슬 클래식'과 25도 '일품진로' 등 고도주에 마케팅을 집중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는 저도주 트렌드 속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으며 주가는 지난 4월 이후 약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자 떠밀리듯 자몽에 출시를 발표하고 지난 19일부터 전국 판매를 시작했다.

후발 주자로 참여했지만 각오는 남다르다. 전체 소주시장의 약 50%를 차지하는 업계 1위답게 과즙 소주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잡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하이트진로는 맛과 도수에서 차별화를 꾀했다. 유자를 사용하는 롯데주류와 달리 다이어트에 좋은 과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자몽을 선택했다. 알코올 도수도 13도로 현재까지 출시된 과즙 소주 중 가장 낮다. 알코올 도수가 낮고 맛있는 술을 찾는 여성 고객층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자몽에는 19일 본격 판매 전부터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고 있다"며 "목표 판매량은 월 500만병으로 시장 반응에 따라 다른 과일 소주 출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주류는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과즙소주 시장에 뛰어든 것에 대해 불안해하면서도 느긋한 모습이다. 하이트진로의 진출로 과즙 소주 시장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과즙 소주 시장이 잠깐의 유행이 아닌 하나의 카테고리로 정착돼 매년 매출 감소세를 보이는 소주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실제로 롯데마트에 따르면 올들어 1~5월 소주 매출은 2.8% 증가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롯데주류 순하리와 무학 좋은데이 컬러시리즈, 금복주 상콤달콤 순한참 등과 과즙 소주가 전체 소주 매출 신장을 주도하며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소주 매출은 2012년 -7.1%, 2013년 -2.3%, 지난해 -6.4%으로 역신장 해왔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하이트진로가 과즙소주 시장에 뛰어들면서 진짜 경쟁에 돌입했다고 봐야한다"며 "소주시장에서 점유율 15% 내외의 롯데주류가 트렌드를 이끌어가기에는 유통력이나 생산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이트진로가 시장에 뛰어들어 과즙소주 시장이 경쟁은 이전보다 치열해질지 모르지만 하나의 카테고리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 쿨링·대나무, 화장품 업계 주름 펴주나

### 신제품 품절 행렬
### 울상인 업계 활력

여름 시즌을 겨냥해 대나무 등 사용감이 시원한 원료로 만든 화장품 신제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더위와 땀 때문에 화장품 소비가 줄며 비수기로 통하는 여름철을 맞은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여파로 울상이던 화장품 업계에 지난달부터 선보인 신제품이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돌파구가 되고 있다. 업계는 신제품 출시와 함께 할인까지 진행하며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다.

토니모리가 지난달부터 매장과 공식 온라인숍에서 판매하던 '순수에코 대나무 시원한 물 수딩 젤'은 출시 10일 만에 누적 판매량 4만 개를 넘어서며 품절됐다. 업체 측은 수딩 젤이 여름철 자주 찾는 제품인 데다, 대나무 수를 함유해 덜 끈적이는 사용감이 인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대나무는 미네랄과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진정 효과가 탁월한 원료로 알려져 있다. 토니모리는 일 판매수량이 예상보다 4배 이상 뛰자 생산량을 늘리고 생산 즉시 매장에 입고시키는 등 수요를 맞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 이달 한 달간 30% 할인 판매한다.

더샘도 '프레쉬 뱀부' 라인이 인기를 끌면서 기존 미스트·수딩 젤 이 외에 추가 라인을 준비 중이다. 이 외에 LG생활건강의 비욘드도 '제주 대나무 수딩젤'을 출시했다.

메이크업 제품 역시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신제품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스킨푸드의 '포어 핏 쿠션 보틀'은 스프레이 타입으로 내용물이 분사되는 쿠션 제품이다.

내용물이 묻은 퍼프가 피부에 닿으면 시원한 사용감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대한피부과학연구소의 임상실험 결과 피부에 도포 후 피부 온도가 -9℃ 낮아지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이 제품은 출시 17일 만에 매장과 온라인에서 품절되기도 했다. 홀리카 홀리카도 쿨링 효과를 가진 여름 전용 메이크업 라인을 이달 선보였다.

/김수정기자 ksj0215@

# 이대목동병원 '메르스 잡기' 총력

### 자사 PR광고 전면 중단
### 확산 방지 영상으로 교체
### 메르스 대처·예방 설명회

메르스 감염 불안감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나왔다.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권)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들이 메르스 대응에 나선 가운데 메르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메르스 설명회'를 연 것. 또 병원 PR 광고를 전면 중단하고 메르스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 10일 김충종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양천구 목5동 주민자치센터 강당에서 열린 통장협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메르스 의심



이대목동병원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LED 영상에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 영상물이 방영되고 있다.

환자 내원시 이대목동병원의 메르스 대처법과 예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어 22일, 23일에는 강서구 교육청이 주관하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부모 간담회에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최희정 교수와 김충종 교수가 각각 참여해 메르스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또 메르스에 대한 오해나 지나친 불안감으로 여전히 병원 방문을 꺼리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국민안심병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열화상 카메라 설치와 선별진료소 운영, 의심환자 음압격리실 진료 등 이대목동병원의 체계적인 감염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11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LED 영상 1만3000대에 집행하고 있는 병원 PR 광고를 전면 중단했다. 대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메르스 확산에 따른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를 영상으로 제작해 방송했다. 지난 15일부터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내 LCD 동영상 광고도 모두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 영상물로 교체해 집행하고 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 새서울글로벌 '서울면세점' 사업 신규 참여

### 중기 컨소시엄 핵심주주
### 면세 여행상품 개발 계획




새서울그룹 계열사인 새서울글로벌(대표 권기연)은 중소기업 컨소시엄인 '서울면세점'에 핵심주주 자격으로 면세점 사업에 신규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면세점은 청주공항과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시티플러스가 주관사이다. 새서울글로벌은 새서울그룹(SS그룹)의 자회사로 서울면세점의 안정적인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서울글로벌은 이번 시내면세점 사업 참여를 계기로 면세 여행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골든비치리조트가 위치한 양양의 국제공항은 72시간동안 무비자로 입국과 체류가 가능해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관광객들과 골든비치리조트와 울진 호텔덕구온천을 연계한 관광투어에 나설 방침이다. 골든비치리조트는 양양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도와 양양군과 함께 금년 9월 사업 승인을 목표로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권기연 새서울글로벌 대표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참여를 계기로 면세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에만 치우치지 않고 한국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업 포부를 밝혔다.

한편 새서울그룹은 1970년대 후반부터 주유소 사업을 시작으로 SK텔레콤의 메가대리점, 강원도 양양의 골든비치 골프리조트 운영사인 ㈜새서울레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울진의 호텔덕구온천, 서울 서부지역과 인천을 관할하는 한국지엠 쉐보레자동차의 공식딜러인 SS오토, 주유소 사업체인 새서울석유 등 국내 유통레저 분야에서 역량을 쌓은 중견 기업이다. 약 10여 년간 인피니티와 닛산의 강남 딜러 사업을 하기도 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 강강술래 "메르스 스트레스 독서로 날리세요"

### 길벗과 책읽기 캠페인
### 주말여행 코스북 등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도서출판 길벗과 함께 메르스로 인해 근심과 걱정이 많은 고객들을 위해 책읽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강강술래는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i.com) 고객마당·경품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자동차 주말여행 코스북'과 '간고등어코치 홈헬스 무작정따라하기(남자 명품복근)'를




증정한다.

주말여행 코스북은 여행 전문 작가 5명이 참여하여 지역별 최상의 드라이브 코스와 이를 연계한 당일 1박2일·2박3일 여행루트를 그림 같은 절경 사진과 함께 소개하는 국내 최초 자동차 여행 코칭북이다.

이번 개정판에는 정보 업데이트는 물론, 본문에 소개된 곳과 유명 맛집 할인쿠폰이 풍성하게 수록됐다. 홈헬스 따라하기는 자신의 체형과 운동 목적에 따라 단계별 10분씩, 총 4단계까지 선택할 수 있는 요일별 맞춤 운동법을 소개한다. /김보라기자



18일 코레일관광개발은 섬진강·대황강 권역을 묶는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곡성군, 광주관광개발㈜, ㈜리버밸리, 강빛마을 밸리홈까지 총 5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코레일관광개발

# 섬진강·대황강 관광벨트 만든다

### 곡성군 등 5곳과 양해각서
### 테마열차 연계 여행상품 개발

코레일관광개발은 '섬진강·대황강 관광벨트 구축사업을 위한 5개 기관 공동 양해각서 체결식을 지난 18일 가졌다.

이번 협약은 곡성군 죽곡면에 위치한 강빛마을 밸리홈 교육관에서 열렸다. '섬진강·대황강권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철도상품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레일관광개발을 비롯해 곡성군, 광주관광개발㈜, ㈜리버밸리, 강빛마을 밸리홈까지 총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2008년 12월부터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을 운영해 왔고 다양한 테마열차와 연계한 여행상품 운영으로 곡성의 관광활성화에 앞장서왔다. 이번 협약으로 코레일관광개발은 각 기관과 함께 섬진강 기차마을을 중심으로 섬진강권 관광자원과 연계한 기차여행 상품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황강권 관광인프라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섬진강권은 섬진강기차마을, 증기기관차, 섬진강 천문대, 섬진강 둘레길, 한옥마을 등이 조성돼 있다. 대황강권은 강빛마을, 카누캠핑장, 치즈체험학교 등의 관광 인프라가 있어 자연·문화유산·생태탐방 등 체류형 관광코스로 적합하다.

이건태 대표이사는 "전국의 테마파크와 기차여행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곡성군의 관광인프라가 연계된 체류형 관광코스를 발전시키겠다. 또한 곡성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컨텐츠 발굴로 섬진강·대황강권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돕겠다"고 말했다.

/최치선기자

# 건보공단, 건보 미가입 사업장 독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지만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미가입 사업장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사업장의 신고 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 사업장으로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 기관 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과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벌금 제119조 과태료 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의: 1577-1000

/복현명기자 hmbok@

### 제4회 광동 암학술상
### 김태유·이종훈·전재관


김태유 교수　이종훈 교수　전재관 박사

광동제약은 서울대 의대 내과 김태유 교수, 가톨릭의대 방사선종양학과 이종훈 교수,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전재관 박사가 '제4회 광동 암학술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광동 암학술상은 대한암학회와 광동제약이 공동 시행하며 최근 2년간 대한암학회지를 인용해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이하 IF)가 최고 수준인 SCI 학술지에 기초논문과 임상논문을 발표하거나, 다수의 SCI 등재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 star bag



### 베트남서 뜨거운 환영

배우 **유인나**가 베트남서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유인나는 지난 19일 '2015 CGV 베트남 토토의 작업실' 참여를 위해 베트남에 입국했다. 이날 호치민 공항은 수많은 현지 팬들이 모여 북새통을 이뤘다. 유인나는 드라마 '인현왕후의 남자'와 '별에서 온 그대'를 통해 베트남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현 소속사와 재계약



배우 **강하늘**이 현 소속사인 샘컴퍼니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샘컴퍼니 측은 "오는 6월 계약 만료를 앞둔 강하늘이 데뷔 때부터 몸담은 자사에 남기로 했다. 강하늘은 데뷔 때부터 동고동락한 소속사에게 신뢰를 보여줬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한편 강하늘은 최근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의 촬영을 마쳤다.



### 국내 첫 활동 마무리

밴드 **엔플라잉**이 21일 SBS '인기가요' 무대를 끝으로 데뷔 앨범 '기가 막혀'의 국내 음반 활동을 마무리했다. 엔플라잉은 지난달 20일 힙합과 록, 펑크 등 다양한 음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밴드를 표방하며 국내에 데뷔했다. 한편 엔플라잉은 다음달 26일 대만 팬 미팅을 시작으로 해외 활동에 나선다.

### 5년 만에 국내 컴백



가수 **채연**이 오는 26일 신곡 '안봐도 비디오'로 5년 만에 국내에 컴백한다. 단순하지만 중독성 강한 브라스 테마 라인에 신나는 비트를 기반으로 한 레트로 팝 펑크의 곡이다. 채연은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해왔다.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 '썸남썸녀'에 출연하며 국내 활동을 시작했다.

# 쓴맛 알아야 단맛도 알게 되죠

'극비수사' **김윤석**



닭백숙 같은 영화. 김윤석(47)이 '극비수사'를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쓴 표현이다. "소금에 간만 찍어 먹어도 진국이 우러나오는 이야기의 힘", 그것은 영화에 대한 김윤석의 소신과 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극비수사'는 1978년 부산 지역에서 일어난 유괴사건을 다룬다. 사건 수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극비로 진행된 수사 과정 속에서 그 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공길용(김윤석) 형사와 김중산(유해진) 도사의 이야기를 그린다.

김윤석은 그동안 여러 차례 형사 역할을 연기했다. 하지만 '극비수사'의 공길용은 이전과는 달랐다. "겉멋 없이 잘난 척도 하지 않고 원칙과 소신으로 수사하는" 진짜 형사 같은 형사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형사가 아닌 평범한 소시민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 형사이면서도 한 집안의 가장인 보통 사람으로 공길용을 그리고 싶었다.

극 초반에 등장하는 집에서의 장면은 김윤석의 생활 연기가 빛을 발한다. 오랜만에 집에 들어와 발바닥 피부를 뜯다 과자를 먹는 장면이다.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는 연기지만 그 속에는 인물에 대한 김윤석의 깊은 계산이 담겨 있다. "형사는 발바닥에 굳은살이 많아요. 오랜만에 집에 가 씻었으니 굳은살도 불어났겠죠. 시나리오 지문에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더러운 걸로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형사라면 그렇게 행동할 것 같아서 한 연기였어요."

> 닭백숙 같은 이야기 힘에 끌려
> 겉멋 없는 형사로 사실적 연기
>
> 담백하지만 속이 꽉찬 영화
> 반딧불 같은 소중한 밝음 얻길



많은 사람들이 김윤석의 연기를 자연스러우면서도 사실적이라고 말한다. 진짜 그 인물이 된 듯 연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윤석의 사실적인 연기는 알고 보면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래서 그는 "집중하면 아무 것도 안 보인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집중을 하면 모든 게 다 보인다. 집중할수록 더 '릴렉스'하게 된다"고 말한다. 연기에 대한 집요한 태도가 담겨 있는 말이다.

유괴사건을 다룬 대부분의 영화는 범인을 잡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극비수사'의 초점은 범인을 잡는 과정이 아닌 범인을 잡으려는 주인공들의 진심에 맞춰져 있다. 소신 있는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극비수사'가 지닌 강점이다.

세월이 흘렀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소신껏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김윤석은 "건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누구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의 탓으로 생각하며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화의 결말은 어떻게 보면 씁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영화는 희망의 기운을 포기하지 않는다. 김윤석 또한 영화가 담고 있는 "반딧불 같은 소중한 밝음"이 관객에게 그대로 전해지길 바란다.

김윤석에게 소신을 물었다. 그는 "나 역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필모그래피를 쌓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가 말한 소신이란 "단맛만 나는 영화"가 아닌, '극비수사'처럼 "화려하지 않고 담백하지만 속이 꽉 찬 영화"로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단맛만 찾으면 헛살만 찌잖아요. 쓴맛도 필요한 맛인데 어떻게 달달한 것만 맛보면서 살겠습니까? 쓴맛을 알아야 단맛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쓰리고 아프지만 속살을 끄집어 내 인간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만드는 영화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암살



베테랑




협녀



뷰티인사이드

## 올 여름 극장가 국내영화 4파전

### '암살' '베테랑' '협녀' '뷰티 인사이드' 등 흥행 대결

극장가 최고 성수기인 7~8월을 공략할 국내 메이저 배급사들의 라인업이 최종 확정됐다.

쇼박스의 '암살'은 다음달 22일 개봉한다. 올 여름 대작들 중 가장 빠른 개봉이다. 할리우드 영화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보다 1주일 앞서 개봉해 박스오피스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CJ엔터테인먼트의 '베테랑'은 다음달 5일 개봉한다.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보다 1주일 늦게 개봉일을 잡았다. '부당거래' '베를린'으로 연이은 흥행을 기록한 류승완 감독의 신작으로 황정민·유아인·유해진·오달수 등이 출연한다. 류승완 감독 특유의 유쾌한 액션 영화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롯데엔터테인먼트의 '협녀, 칼의 기억'도 8월 개봉을 확정했다. 이병헌·전도연·김고은 주연의 액션 대작이다. 당초 지난해 개봉 예정이었으나 이병헌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면서 개봉이 연기됐다. 고려 말을 배경으로 한 세 검객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수려한 영상과 웅장한 액션으로 담았다.

7월 개봉 예정이었던 NEW의 '뷰티 인사이드'는 메르스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개봉을 8월 중순으로 한 달여 정도 늦추게 됐다. 자고 일어나면 매일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남자라는 독특한 설정을 다룬 판타지 로맨스다. 20인 1역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았다.

/장병호기자



From magic to beauty NEW
세븐에이트
흑채 커버스프레이
www.ilovenature.co.kr
동성제약
뿌리면 끝!
천연 대나무 숯으로 풍성하게!
세븐에이트 흑채 커버스프레이
왜 천연 대나무 숯인가?
일반 숯에 비해 10배 이상 고운
대나무 숯 미립자의 원적외선과 우수한
통기성이 두피의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왜 세븐에이트 흑채 커버스프레이인가?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일시 모발 도포제 조성물 국내 특허
사용 전(남자)
사용 후(남자)
사용 전(여자)
사용 후(여자)
• 자연스러운 뿌리는 가발로 탈모고민 해결!
• 방수코팅되어 물이나 땀에도 안심!
• 두피의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대나무 숯 함유!
(천연 숯 증모제 조성물 특허 제10-1183526호)
• 5~10초면 원하는 헤어스타일 완성!
• 약 200회 분사가 가능한 용량!
• 4가지 컬러로 다양한 헤어 컬러 연출!
방수력 실험
세븐에이트 흑채
일반 증모제
4가지
다양한 칼라
남성용
여성용
자연스러운 흑색
진한 갈색
갈색
밝은 갈색
특수 방수코팅이
되어 있어 더욱더
안심하고 사용 가능함
특별 구성
한정 판매
자연체감 (시중용 증정)
멘솔 헤어클리닉 샴푸
*소비자가격 : 2만원
| 제품 구성 세븐에이트 흑채 60g 3개(동일 컬러) + 자연체감 멘솔 헤어클리닉 샴푸(300ml) 45,000원 | 제품 구입 및 상담 080-661-4949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04-00565
상호명 : 동성제약(주) | 대표자 : 이양구

# 청춘들에게 전하는 일상의 긍정적 해석



**화제의 책**

**스물 아홉 마흔 둘**

서경석 지음 / 에듀윌 펴냄

## '진짜사나이' 서경석 에세이집
## 軍생활 느낀 감동·깨달음 담아
## 다시 살아난 도전·열정에 감사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진짜사나이'에서 원년 멤버로 활약했던 방송인 서경석이 에세이 '스물아홉 마흔둘'(에듀윌 출판사)을 출간했다.

'스물아홉 마흔둘'은 마흔둘의 나이에 군대 체험 예능 MBC '진짜사나이'에 출연해 스무 살의 어린 친구들과 군대 생활을 하며 스물아홉 군대에 입대했을 때에는 알지 못했던 깨달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잔잔하게 담고 있다.

서경석은 나이, 체력 등 모든 것이 한계로 다가오는 순간들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외 없이' 훈련에 참여하면서 스스로가 일상에 감사하게 됐다. 서경석은 "이런 느낌과 감동을 스물아홉 청춘, 마흔둘의 청춘들과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1장 '인생의 절반, 내 삶은 이제 절정', 2장 '나를 다 쓰는 삶', 3장 '열외없이 열정하라', 4장 '나를 어제보다 더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로 주제를 묶어 서경석은 다양한 에피소드에 철학을 담아 담담하게 풀어낸다.

그가 풀어낸 에피소드들은 우리와는 다른 경험이지만 그 고민과 성장의 결은 우리와 꼭 닮아 있어 위안을 준다.

우리의 스물아홉과 마흔둘은 모두 취업과 불안정한 일자리, 치솟는 집값 등으로 사회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인생의 또 한 고개를 넘는 시기로서 가장 고민이 많은 일상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그들에게 서경석은 자신의 일상과 경험 속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배우며 성장한 순간들을 풀어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 '당신의 일상은 생각보다 괜찮다'고 말이다.

일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좋아하면서 삶의 긍정적 의미를 발견해 내는 서경석의 에세이는 방송인 김제동의 말처럼 삶의 또 다른 맛을 느끼게 한다.

방송인 서경석은 서울대 불문과에 재학 중이던 1993년 MBC 개그콘테스트로 데뷔해 '엘리트 개그맨'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2013년 3월 마흔둘의 나이에 MBC '진짜사나이'에 출연해 21개월간 원년 멤버로 시청자들과 만나며 지난해 말 만기 전역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 TV 하이라이트

### 씨스타와 함께 하는 전국고민자랑

**◆ KBS2 '안녕하세요'**

오후 11시 10분



건강미 대표 걸그룹 씨스타의 보라·효린·소유와 함께하는 전국고민자랑. 지난 주 시도 때도 없이 자는 친구 덕분에 2승을 차지한 '내 좀 살리도'의 주인공이 3승에 도전한다. 헬스장을 동업하는 친구가 일은 몽땅 미루고 운동만 하느라 울화통이 터진 30대 남자, 불륜으로 오해 받는데 지쳤다는 30년차 찰떡궁합 부부, 배우가 되겠다고 멀쩡히 다니던 대학을 포기한 아들 때문에 고민인 50대 주부가 출연한다.

/정리=하희철기자 bbuheng@

**◆ SBS '힐링캠프'**

오후 11시1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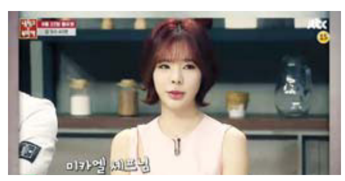
'자유남편' 특집으로 배우 이덕화와 최수종이 출연한다. 카리스마와는 다르게 아내를 '예쁜이'라고 부르는 이덕화, 그의 정체를 밝힐 묘령의 여인이 스튜디오에 찾아온다.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오후 9시 40분

베일에 싸여있던 아이돌 숙소 냉장고가 공개된다. 국가대표급 아이돌 소녀시대 써니와 인피니트 성규가 출연해 멤버들의 독특한 식성을 공개한다.



**◆ tvN '촉촉한 오빠들'**

오후 9시40분

'밥 한 끼' 3탄이 찾아온다. 위로의 밥상부터 코끝 찡해지는 사랑의 밥상까지, 밥브라더스가 마법 같은 밥 한 끼를 선사해 평범한 일상 속에 감동 밥상이 펼쳐진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2일 (월)**

| 지상파 | KBS1 | KBS2 | MBC | SBS | EBS1 | EBS2 |
|---|---|---|---|---|---|---|
| 18시 | 00 6시 내고향<br>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 00 KBS 글로벌 24<br>30 2TV 저녁 생생정보 | 10 생방송 오늘 저녁 | 00 생방송 투데이 |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66회)<br>05 출동! 슈퍼윙스<br>25 내 친구 아서<br>45 발명이 팡팡! | 00 하늘 놀이터 (재)<br>25 Real Fun World (재)<br>30 헬로 코코몽(1·2) (재)<br>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한국어) (재) |
| 19시 | 00 KBS 뉴스 7<br>30 우리말 겨루기 | 50 오늘부터 사랑해 (56회) | 15 위대한 조강지처 (6회)<br>55 MBC 뉴스데스크 | 20 돌아온 황금복 (10회) | 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br>30 EBS 뉴스<br>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재) |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br>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br>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
| 20시 | 25 가족을 지켜라 (31회) |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br>55 위기탈출 넘버원 | 55 딱 너 같은 딸 (26회) | 00 SBS 8 뉴스<br>55 생활의 달인 | 40 다큐 오늘<br>50 세계 테마 기행 | 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재)<br>20 스쿨랜드-절대비법<br>30 공부의 왕도 (재) |
| 21시 | 00 KBS 뉴스 9 | | 30 리얼스토리 눈 | | 30 한국기행<br>50 EBS 다큐 프라임 | 00 다큐 오늘<br>10 창사특집 융합형 지식탐험 링크 |
| 22시 | 00 가요무대 | 00 너를 기억해 (1회) | 00 화정 (21회) | 00 상류사회 (5회) | 45 달라졌어요 |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센스 앤 센서빌리티> |
| 23시 | 00 KBS 뉴스라인<br>40 TV, 책을 보다 | 1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 15 호국보훈의 달 특집 MBC 다큐스페셜 |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 |
| 24시 | 20 1차 세계대전 어느 병사들의 이야기 |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 20 MBC 뉴스 24<br>55 스포츠 특선 | 35 나이트라인 | 05 지식채널e (재)<br>10 EBS 인문학 특강 |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

| 케이블 | JTBC | tvN | 올리브TV | 내셔널지오그래픽 | 채널CGV | 스포츠 |
|---|---|---|---|---|---|---|
| 18시 | 30 유자식상팔자 (106회) (재) | | 20 샘과 레이먼의 올리브 쿠킹타임 듀엣 (29·30회) | | | ◆ 해외야구<br>02:35 피츠버그 vs 워싱턴<br>03:10 텍사스 vs 시카고W<br>09:08 샌프란시스코 vs LAD<br> |
| 19시 | 55 JTBC 뉴스룸 | 40 다녀오겠습니다 (1회) | 25 올리브쇼 2012 (114회) | 00 쇼킹 70억 (22회) | 30 S.W.A.T.특수기동대 | |
| 20시 | 50 JTBC 뉴스룸 | 40 명단공개 (68회) | 00 오늘 뭐 먹지? (73·72회) | 00 아프리카 원시문명 대탐험 1부 초원의 유랑자, 가구루족 | | |
| 21시 | 40 냉장고를 부탁해 (32회) | 40 촉촉한 오빠들 (5회) | 00 한식대첩 3 (5회) | 00 <천혜의 자연, 오스트레일리아> 1부. 붉은캥거루의 사막 | | |
| 22시 | | | 20 오늘 뭐 먹지? (73·53회) | 00 라이프 해킹 (11·12회) | 00 헤드윅 | |
| 23시 | 00 비정상회담 (51회) | 00 신분을 숨겨라 (3회) | 40 올리브 쿠킹타임 (9회) | 00 <사상 최악의 참사> 인도 독가스 질식사건 | | |
| 24시 | 30 화이트 스완 (4회) | 20 삼시세끼 정선편 (6회) (재) | 00 샘킴의 함께쿠킹 (12·11회)<br>30 2015 테이스티로드 (22회) | 00 <극한직업>전복 양식장 | 10 캐리비안의 해적3:세상의 끝에서 | |



21일 오전 캐나다 오타와 랜스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캐나다 여자월드컵 16강전에서 스웨덴을 꺾은 독일 선수들이 기쁨을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 '우승후보' 독일 무난히 8강행

FIFA 여자월드컵

### 스웨덴 상대로 4-1 압승
### 中, 카메룬 꺾고 8강 진출

2015 캐나다 여자월드컵의 막강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독일이 스웨덴을 꺾고 8강에 진출했다.

독일은 21일 오전(한국시간) 캐나다 오타와 랜스돈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웨덴과의 16강전에서 스트라이커 첼리아 자지크의 2골 1도움에 힘입어 4-1로 승리했다.

B조 1위(2승1무)로 16강에 올라온 독일은 D조 3위(3무) 스웨덴을 맞아 전후반 각각 두 골씩을 꽂아 넣으며 1골을 만회하는데 그친 스웨덴을 손쉽게 제압했다.

독일은 전반 24분 만에 공격수 안나 미타그가 자지크의 어시스트를 받아 선제골을 뽑아냈다. 이어 전반 36분 상대 진영 페널티박스 안에서 반칙을 얻어내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전반을 2-0으로 마쳤다.

후반 들어서도 독일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후반 33분과 43분 각각 추가골을 넣으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스웨덴은 3-0으로 뒤지던 후반 37분 린다 셈브란트가 1골을 만회했지만 경기를 뒤집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독일은 한국과 프랑스의 16강전 승자와 8강전을 치르게 된다.

A조 2위(1승1무1패) 중국도 C조 2위(2승1패)로 올라온 카메룬을 꺾고 8강에 올랐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콜롬비아 승자와 8강전을 치르게 됐다.

중국은 이날 캐나다 에드몬톤의 코몬웰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16강전에서 왕산산의 결승골에 힘입어 카메룬을 1-0으로 격파했다.

중국은 카메룬의 공세에 다소 힘든 경기를 펼쳤다. 그러나 전반 12분 터진 왕산산의 골을 끝까지 잘 지켜 8강행을 이뤄냈다. 이날 9차례에 걸쳐 카메룬의 골문을 위협했으나 왕산산이 득점으로 연결한 슈팅이 유일한 유효슈팅이었다.

반면 카메룬은 20개의 슈팅을 쏟아내며 중국을 압박했다. 하지만 후반 추가시간이 7분이나 주어진 상황에서도 결국 골문을 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 21일 전적

독일 4(2-0 2-1)1 스웨덴
중국 1(1-0 0-0)0 카메룬

# 아르헨티나, 자메이카 잡고 8강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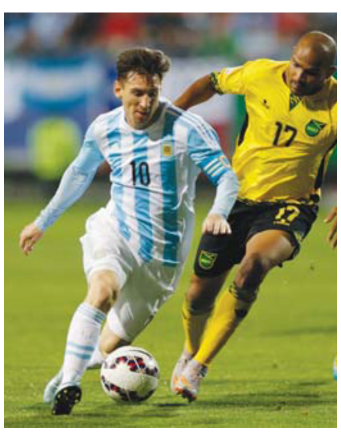
코파 아메리카

### 2승 1무 기록… B조 1위로
### 메시, A매치 100경기 출전

아르헨티나가 자메이카를 물리치고 코파아메리카 8강에 진출했다.

아르헨티나는 21일 오전(한국시간) 칠레 비나 델 마르에서 열린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초청팀 자격으로 참가한 자메이카를 1-0으로 꺾었다. 이날 승리로 아르헨티나는 2승1무를 기록하면서 B조 1위를 차지, 8강에 오르게 됐다.

아르헨티나는 전반 11분 곤살로 이과인(나폴리)이 앙헬 디마리아(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찔러준 공을 골지역 정면에서 오른발로 슈팅해 선제골을 얻었다. 전력에서 앞선 아르헨티나는 자메이카를 시종일관 몰아붙였지만 추가골을 얻지는 못했다.



21일 오전(한국시간) 칠레 비냐 델 마르에서 열린 코파아메리카 조별리그 B조 3차전 아르헨티나와 자메이카의 경기.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왼쪽)가 자메이카에 맞서 공을 다투고 있다. 이날 경기는 아르헨티나가 1-0으로 승리했다. /AP 연합뉴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는 이날 경기로 A매치 100경기 출전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다.

메시는 전반 3분 페널티지역 외곽에서 기습적인 왼발슈팅을 날렸다. 이어 전반 26분 코너킥 상황에선 골지역 정면에서 오른발로 슈팅을 했지만 모두 상대팀에 막혔다.

2004년 U-20 대표팀에 선발된 메시는 2005년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최다득점(6점)을 기록하면서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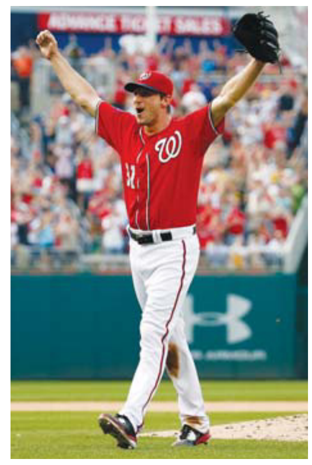
아르헨티나의 축구영웅 디에고 마라도나의 등번호 10번을 물려받은 메시는 100번의 A매치에서 46골을 기록했다.

한편 우루과이는 파라과이와 1-1로 비겼다. 전반 29분 우루과이의 호세 마리아 히메네스의 헤딩골로 1-0으로 앞섰지만 전반 44분 루카스 바리오스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무승부를 거뒀다.

우루과이는 1승1무1패로 B조 3위에 그쳤다. 하지만 A조 3위 에콰도르에 승점에서 앞서면서 8강에 진출하게 됐다. /장병호기자

# 워싱턴 셔저, 피츠버그 완벽 제압

### 노히트노런 기록
### 강정호도 무안타



21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 내셔널스파크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 피츠버그 파이러츠의 경기. 워싱턴의 에이스 맥스 셔저가 노히트 노런을 기록한 뒤 기뻐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워싱턴이 6-0으로 승리했다. /AP 연합뉴스

미국 프로야구 워싱턴 내셔널스의 에이스 맥스 셔저(31)가 노히트 노런으로 피츠버그 파이러츠를 물리쳤다.

2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 내셔널스파크에서 열린 워싱턴과 피츠버그의 경기에서 셔저는 선발투수로 출전해 9이닝 동안 안타를 하나도 맞지 않고 팀의 6-0 승리를 이끌었다. 삼진은 10개를 잡아내 피츠버그 타선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완투를 하는 동안 던진 공은 106개였다. 그 중 스트라이크가 82개에 이를 정도로 빼어난 제구를 보여줬다. 나머지 아웃카운트는 뜬공 13개, 땅볼 4개로 채워졌다. 워싱턴 포수 윌슨 라모스가 셔저의 공을 받아내며 영광을 함께 했다.

셔저는 이날 단 한 명의 출루도 허용하지 않는 퍼펙트게임에 도전했다. 9회초 2사까지 피츠버그 타자 26명이 차례로 돌아서면서 퍼펙트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러나 27번째 타자로 출전한 대타 호세 타바타와 8구 승부 끝에 셔저가 던진 몸쪽 공이 타바타의 팔꿈치에 맞으면서 퍼펙트는 마지막 순간 깨졌다. 그러나 셔저는 다음 타자 조시 해리슨을 좌익수 뜬공으로 잡아내 노히트 노런 경기를 만들었다. 9회 2사에서 퍼펙트가 깨진 것은 메이저리그 통산 13번째다.

피츠버그의 4번타자 겸 3루수로 출전한 강정호도 셔저의 노히트 행진을 막지는 못했다. 강정호는 2회초 우익수 뜬공, 4회초 2루수 땅볼, 8회초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시즌 타율은 0.283에서 0.278(162타수 45안타)로 떨어졌다. /장병호기자

# 신지애, JLPGA 투어 시즌 2승

### 이지희 1타차로 따돌리고 역전승

신지애(27·스리본드·사진)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역전승을 거두며 시즌 두 번째 우승컵을 차지했다.

신지애는 21일 일본 지바현 지바시의 소데가우라 컨트리클럽(파72·6584야드)에서 열린 니치레이 레이디스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잡아 5언더파 67타를 쳤다.

합계 11언더파 205타를 기록하면서 신지애는 이지희(36)를 1타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상금은 1440만 엔(약 1억3000만원)이다.

신지애는 지난 5월 사이버 에이전트 레이디스 토너먼트 우승을 포함해 이번 시즌 2승을 올렸다. 일본 무대에서 통산 11번째 우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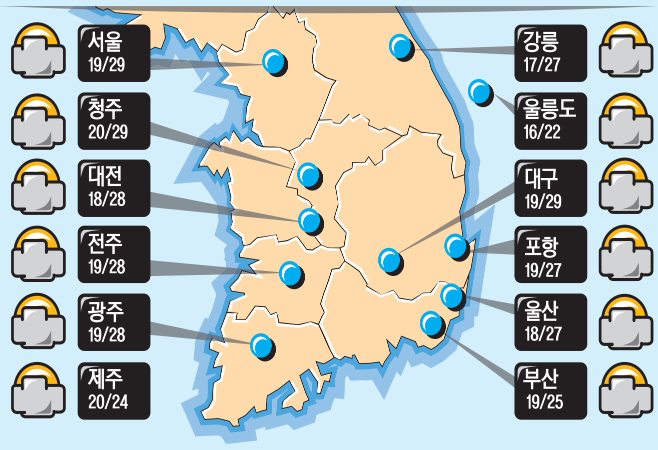
이지희에 3타 뒤진 공동 3위로 출발한 신지애는 전반에만 3타를 줄이며 추격을 시작했고 후반에도 버디 2개를 추가해 역전승을 완성했다. /장병호기자



## 날씨

6/22 월 일출시각 05:11 일몰시각 19:5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 | | | | | | | | |
|---|---|---|---|---|---|---|---|---|
| 5 | | | 8 | | 7 | | | 2 |
| | | 8 | 5 | | 3 | 6 | | |
| | | | | | | | | |
| | 7 | | 6 | 2 | 5 | | 3 | |
| 4 | | | | | | | | 6 |
| | 6 | | 7 | 1 | 4 | | 9 | |
| | | | | | | | | |
| | | 1 | 9 | | 6 | 7 | | |
| 3 | | | 1 | | 2 | | | 9 |

| | | | | | | | | |
|---|---|---|---|---|---|---|---|---|
| 3 | | | | | | | | 8 |
| | | 6 | | | 2 | 9 | | |
| | 5 | 9 | | | 8 | | | |
| | | | | | 3 | | | |
| | | | | 7 | 9 | 2 | 8 | |
| | 8 | 7 | 6 | 2 | | | 5 | |
| | 6 | | | 9 | | | | 3 |
| | | | | 3 | 1 | | | 5 |
| 4 | | | | | | 8 | 9 | 1 |

### 스도쿠 정답

| | | | | | | | | |
|---|---|---|---|---|---|---|---|---|
| 5 | 1 | 6 | 8 | 9 | 7 | 3 | 4 | 2 |
| 9 | 2 | 8 | 5 | 4 | 3 | 6 | 1 | 7 |
| 7 | 3 | 4 | 2 | 6 | 1 | 9 | 5 | 8 |
| 1 | 7 | 9 | 6 | 2 | 5 | 8 | 3 | 4 |
| 4 | 5 | 2 | 3 | 8 | 9 | 1 | 7 | 6 |
| 8 | 6 | 3 | 7 | 1 | 4 | 2 | 9 | 5 |
| 6 | 9 | 7 | 4 | 3 | 8 | 5 | 2 | 1 |
| 2 | 4 | 1 | 9 | 5 | 6 | 7 | 8 | 3 |
| 3 | 8 | 5 | 1 | 7 | 2 | 4 | 6 | 9 |

| | | | | | | | | |
|---|---|---|---|---|---|---|---|---|
| 3 | 2 | 4 | 9 | 1 | 6 | 5 | 7 | 8 |
| 8 | 1 | 6 | 7 | 5 | 2 | 9 | 3 | 4 |
| 7 | 5 | 9 | 3 | 4 | 8 | 1 | 6 | 2 |
| 6 | 9 | 2 | 5 | 8 | 3 | 4 | 1 | 7 |
| 5 | 4 | 3 | 1 | 7 | 9 | 2 | 8 | 6 |
| 1 | 8 | 7 | 6 | 2 | 4 | 3 | 5 | 9 |
| 2 | 6 | 1 | 8 | 9 | 5 | 7 | 4 | 3 |
| 9 | 7 | 8 | 4 | 3 | 1 | 6 | 2 | 5 |
| 4 | 3 | 5 | 2 | 6 | 7 | 8 | 9 | 1 |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 Penalty Republic...Excessive Increase

<과태료 공화국… 도 넘은 국민 삥듣기>

Voices of criticism are emerging stating that the government is over-collecting from the citizens in order to fill the gap of tax revenue.

Overall increase is being made including the cigarette price, year end tax adjustment, fine, and so on.

3.2 billion dollars of fine and penalty were collected last year which was 366.6 million dollars more than the expected amount.

The Profits from the fine and penalty was 3.2 billion dollars which is 366.6 million dollars more than year 2013.

The fine profits wee 949.1 million dollars which is 80 million dollars more than what was expected.

Also, the local government's transportation fare is increasing continuously. Seoul has increased 200 won for the subway fare and 150 won for the bus fare.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9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세계간호사대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국민 삥뜯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담뱃세, 연말정산, 과태료 등 전방위적인 국민 삥듣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과태료와 벌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3조2000여억원이다. 이는 2013년보다 3666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과태료 수입은 9491억원으로 목표치보다 800억원이나 더 걷혔다.

여기에 지자체가 부과하는 교통요금도 계속 인상되고 있다. 18일 서울시는 지하철 200원, 버스요금 150원 인상안을 확정지었다.

PAGODA



#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 축구 접고 방황하는 아들 장래가 걱정됩니다 정으로 감싸고 대화로 진로고민 풀어 보시길

민혁 엄마 남자

**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김상회의 사주속으로를 보고 있는 애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의 사주를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아들은 축구를 하던 녀석인데 작년 8월부터 방황을 하더니 잠시 멈추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교를 가는 날보다 안가는 날이 더 많습니다. 아들이 가지고 태어난 사주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또한 계속 축구를 해야 되는 지도 알고 싶고요

**A** 민혁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의 사주를 알고자 상담을 의뢰 하셨는데 아드님이 태어난 생년월일과 시를 양·음력 구분하여 알려 주셔야 합니다. 사주상담은 생년월일시를 정해진 일정한 공식에 의거 하여 사주8자를 알아본 후 운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명 하는 것인데 가끔 '사주 속으로'에서 상담 의뢰 시 생년월일시를 누락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또 한편 양력인지 음력인지 구분을 안 하고 남녀의 구분도 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독자 분들께서는 상담을 의뢰를 하실 때 단순히 생년월일만 알리고 아무런 내용도 없이 '사주'를 봐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주는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께 진료하듯 약국에서 약을 짓듯이 필요한 내용을 반드시 적어 올리십시오. 사주팔자를 보면 앞으로 나가야할 진로와 학업성취도, 결혼, 궁합, 사업번창, 직장, 학교, 부귀귀천, 건강과 체질, 질환, 부부관계, 대인관계, 성미, 처세방법 등 수없이 많기 때문에 막연하게 사주를 봐달라는 것 보다는 필요한 내용을 적어서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말씀을 드릴 것은 성인 18세 이하인 학생에 대해서는 사주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즉 학생은 인생행로를 헤쳐 나가는 길이 너무나 무궁무진 하고 기회의 수가 많으므로 운명을 단편적으로 논할 수가 없습니다. 운명은 의지와 노력에 의하여 얼마든지 개운이 되고 뜻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의 경우 지금 사춘기 병을 앓고 있다고 보며 걱정되시겠으나 부모자식 간의 정으로 감싸고 체력이 뒤떨어지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속 썩혔던 자식이 나중에 지극한 효자가 되는 예가 많으니 이점을 숙지하시고 진로에 대해 일단은 대화가 있어야 하겠지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 신점[神占] 운세 6월 22일 (음 5월 7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쥐 **48년생** 예상되는 위험에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60년생** 건강이 많이 악화됩니다. **72년생** 돈을 좀 저축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84년생** 종합진단을 한번 받아보세요.

소 **49년생**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1년생**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73년생** 선배에게 대들지 말고 예의를 갖추세요. **85년생** 자신의 취치를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호랑이 **50년생** 경쟁하지 마세요. **62년생** 부부간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74년생**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세요. **86년생** 싸움을 할 수 있으나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끼 **51년생** 과거를 반성하고 내일을 대비하세요. **63년생** 반성 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75년생** 자만하면 좋지 않습니다. **87년생** 마음을 크게 먹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용 **52년생** 가벼운 운동이 길합니다. **64년생** 안정된 자세로 천천히 자신의 길을 가세요. **76년생** 운이 너무나도 길합니다. **88년생** 생각한 바를 밀고 나가세요.

뱀 **53년생**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65년생** 이성과의 이별수가 예상됩니다. **77년생** 달도 차면 기운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89년생** 옛 동창들과 어울려 이야기하는 것이 길합니다.

말 **54년생** 강한 고집은 흉합니다. **66년생** 주변을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78년생** 이성운은 좋지만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90년생** 작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양 **55년생** 칼을 조심하세요. **67년생** 불안정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79년생** 물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91년생** 업무에 잔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원숭이 **56년생** 생활 컨디션이 저조합니다. **68년생** 골치를 앓던 문제가 우연히 해결됩니다. **80년생** 사전 연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92년생** 진득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닭 **57년생**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길하지 못합니다. **69년생** 길한운의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81년생**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93년생** 유쾌한 하루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개 **58년생** 재능과 지식을 널리 활용해야 할것입니다. **70년생** 실속을 취하세요. **82년생** 운이 좋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94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도 다음을 기약하세요.

돼지 **59년생** 귀하의 본분을 잊지 마세요. **71년생** 안정을 취하세요. **83년생** 금전, 이성문제, 모두 유리할 것입니다. **95년생** 기다림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현대·기아차 JD파워 오해와 진실



**김종훈의 재계 바로보기**

미국의 마케팅정보회사인 JD파워의 '초기품질조사(IQS; Initial Quality Study)'에서 기아자동차가 2위, 현대자동차가 4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최상위권 수준의 품질경쟁력을 입증했다. 포르셰 등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외하면 기아차가 1위, 현대차가 2위를 기록했다. JD파워의 신차품질조사는 엔진과 트랜스미션 등 8개 부문 233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미국에서 브랜드 충성도와 재구매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로 활용된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인터넷상에서 일고 있다. 앞서 지난 2월말 미국 JD파워에서 조사한 '내구품질조사(VDS; Vehicle Dependability Study)'에서는 기아자동차는 21위, 현대자동차가 26위를 차지했다는 것 때문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품질이 별로인데 좋은 것처럼 속였다는식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굳이 현대·기아차를 지적 하려면 '알리고 싶은 사실만 알렸다'고 지적하는 편이 더욱 근사치에 가까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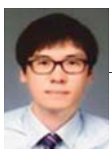
JD파워는 자동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품질 평가를 한다. 이번에 논란이 된 두 가지 평가는 다르다. 신차 구입 후 90일 동안의 문제점을 종합 점수화한 '초기품질조사'가 있고, 구입 후 3년이 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내구성품질조사'도 있다. 내구품질조사는 매년 11~12월에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듬해 2월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한 초기품질조사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구입 후 3개월 동안 문제점 등을 종합해 6월 중순께 발표한다.

현대·기아차가 우수한 성적을 받은 건 '초기품질조사'이고, 앞서 발표한 것은 '내구품질조사'이기에 단순 비교 할 수가 없다. 2012년 생산돼 3년 이상 된 자동차에서 평균치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신차품질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최근 들어 품질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최근 생산된 차량의 품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내구성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JD파워의 자동차 품질담당 부회장인 레니 스네판스는 "이번 결과는 품질 지형의 변화를 보여준다"면서 "오랫동안 '황금 기준'(Gold Standard)으로 여겨져 온 일본차의 품질 향상속도가 더딘 사이 특히 한국차의 품질이 빠르게 향상됐다"고 평가한 것이 정확한 표현 같다.

앞서 2011년부터 '품질제일주의'를 외치며 선제적인 품질 향상 활동을 주도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글로벌 품질경영'이 성과를 발휘 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가 더욱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고 프리미엄브랜드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JD파워의 초기품질조사와 내구품질조사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산업부장

# 국내 사립대학의 비리,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기자 수첩**

복 현 명 <사회부 기자>

지난 5월 22일 중앙대 본분교 통합과 적십자간호대학 인수 등을 놓고 각종 특혜와 뇌물을 주고 받은 박범훈 전 총장과 박용성 전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들은 공판에서 교육부 등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특히 박 전 이사장의 경우 자신의 편이 되지 않는 교수들을 향해 '목을 쳐라'라는 내부 메일을 보내 지성의 전당인 대학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듯 했다.

현재 중앙대는 이사장이 바뀐 상태다.

사학의 비리는 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운대의 경우 지난 5월 15일 조무성 전 이사장이 2011년 광운대 문화관 리모델링 공사 수주를 댓가로 공사업자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또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상지대는 원주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대학의 문제를 지역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대에서 열린 '벼랑끝의 대학: 대학 자율성을 위한 싸움'을 주제로 한 긴급 토론회에서 최영찬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의장은 "대학이 정부의 대학정책과 사립대학의 문제를 짚어보고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할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시장논리가 적용되면서 지성과 배움의 추구는 뒷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를 보면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또 제19조(임원의 직무)에 따르면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고 명시됐다.

이렇듯 이사장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인해 일부 이사장들에게 대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서울의 한 사립대학의 A 교수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강조하지만 학교를 운영하는 이사장과 이사회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 제자들 보기가 부끄럽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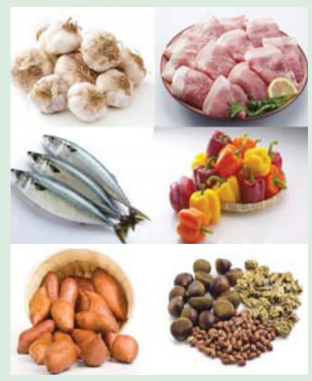
진정한 교육의 질은 돈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

대학들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올바른 배움과 이성을 함양시켜 사회의 올바른 일꾼을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메르스 이기는 면역력 강화식품은?

### 현미·마늘·고등어·홍삼 등 10가지 선정

**소비자 119**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때문에 면역력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한영양사협회와 사단법인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이 '면역력 증강 식품 10가지 플러스 원'을 선정, 발표했다.

현미 등 곡류 1종, 마늘·파프리카·고구마 등 채소 3종, 고등어 등 해산물 1종, 돼지고기 등 육류 1종과 홍삼·표고버섯·견과류·요구르트가 포함됐다. 식품 이외에 '햇볕'도 선정됐다.

현미에 들어있는 비타민B2는 세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마늘의 면역력 증강 성분으로 알려진 것은 매운맛 성분인 알리신이다. 영국에서 146명을 대상으로 12주간 마늘 추출물을 먹은 사람과 섭취하지 않은 사람의 감기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마늘을 먹은 사람이 감기에 3분의 2나 덜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프리카의 베타카로틴은 사람의 체내로 들어가면 '항(抗)감염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A로 변환된다. 고구마의 면역 증강 성분은 베타카로틴. 고구마 대신 당근·단호박을 먹어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은 염증 완화를 돕고 감기·독감으로부터 폐를 보호한다. 돼지고기에 함유된 아연은 면역력 증강에 관한 한 미네랄 중 최고로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생성에 관여한다. 다만 아연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홍삼(인삼 포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면역 강화 효과를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다. 진세노사이드(사포닌의 일종)와 폴리페놀(항산화 성분) 성분이 면역력을 강화한다. 표고버섯에 함유된 베타글루칸은 외부에서 바이러스 등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이를 잡아먹는 대식세포를 활성화한다.

호두와 아몬드 등 견과류에 많은 셀레늄은 백혈구가 사이토카인(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을 더 많이 생성하도록 한다. 요구르트 등 유산균 제품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감기 등 상기도 감염을 앓는 기간을 평균 하루, 최대 3일까지 줄인 것으로 보고됐다.

식품 이외에 햇볕도 선정됐다. 박태균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회장은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소로 비타민 D를 빼놓을 수 없다"며 "햇볕을 하루 20분가량만 쬐어도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 D가 충분히 생성된다"고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

## 인 사

■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파견 및 전보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파견 부이사관 김현기 ▷상동(上同) 파견 서기관 김대균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실 문화산업정책과장 강수상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관실 국어정책과장 이정미 ▷국민소통실 홍보정책관실 홍보정책과장 공형식 ▷ 상동(上同) 여론과장 정은영

■ 세종시교육청

△5급 전보 ▷정책기획관 예산담당 양현석 ▷교원인사과 임용관리담당 이진용 ▷학교설립과 개교지원담당 박찬웅 ▷행정과 의회법무담당 김진화 △5급 전입 ▷학교시설관리단 학교관리2담당 김종환 △5급 퇴직 ▷학교설립과 윤민균 ▷소정초 김진우

■ 강원도교육청

△4급 승진·전보 ▷정책기획관 김경애 ▷총무과장 최수길 ▷춘천교육문화관장 민관식 ▷원주교육문화관장 이종열 ▷행정과장 박춘매 ▷강원도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송선호 ▷강원도교육과학정보원 총무부장 박하영 △5급 승진·전보 ▷치악고 행정실장 성건용 ▷설악고 행정실장 박영애 ▷양양중·고 행정실장 김우영 ▷철원여중·고 행정실장 박환남

■ 가톨릭관동대학교

▷일반대학원장 정재국 ▷교육대학원장 겸 사범대학장 김경숙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장 겸 인문경영대학장 심상목 ▷에너지자원융합대학원장 겸 창의융합공과대학장 조재현 ▷의과대학장 구민성 ▷경찰법정대학장 박기병 ▷교무처장 김남현 ▷학생처장 박영술 ▷대외협력처장 윤상호 ▷산학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이병관 ▷도서관장 장덕형 ▷전산정보원장 겸 취업인턴십지원센터장 김여환 ▷생활관장 권미경 ▷평생교육원장 고재욱 ▷미디어센터장 강우원용 ▷교수학습개발센터장 허혜자 ▷국제교류교육원장 구광범 ▷CKU인재양성단장 유승동 ▷입학사정센터장 이제영 ▷사회봉사센터장 및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김남익

■ 파이낸셜뉴스

<승진> △이사대우 ▷편집국 편집국장 임정호 ▷논설위원실 논설실장 곽인찬 △부국장 ▷편집국 생활경제부장 차석록 △부국장 대우 ▷AD기획국 마케팅팀장 박진호 △부장 ▷편집국 문화스포츠부 스포츠레저팀장 정대균 ▷정보미디어부 이구순 △차장 ▷편집국 정치경제부 김승호 ▷편집국 사회부 장용진 ▷온라인편집부 운영팀장 서상렬 ▷온라인편집부 뉴스팀장 이대율 ▷AD기획국 관리부 관리팀장 정성윤 <승진·보임> △부국장 ▷편집국 사회부장(부국장) 이두영 <전보·보임> ▷논설위원 김승중 ▷건설부동산부 부장직무대행 김관웅 △fn아트 <승진> ▷상무이사 이상일

## 부 고

▲이수행 씨 별세, 종승(IR큐더스 대표이사)·종용·종웅 씨 모친상, 김종선(부천축협 이사)·송희양 씨 빙모상 = 21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 3호실, 발인 24일 오전 6시 ☎ 031-787-1500

▲김경육씨 별세, 선화·원옥(금상초등학교 교사)·정재씨 부친상, 김진무·한상돌·조지현(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상무)씨 빙부상 = 21일 오전 1시,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2층 25호실, 발인 23일 오전 6시 ☎ 031-219-6654

HNT 하나투어리스트

하나투어리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특가 상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www.hanatourist.com

# 허니문 주말 상담회



예비 신랑♥신부님
주말에도
허니문 상담 받으세요!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픈**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빌딩 2층 (주)하나투어리스트




**상담회 특전** | 허니문 주말 상담회에 참여하는 신랑 신부님께 드리는 특전

❶ 현장 예약시 **하나투어 40만 마일리지** 제공(커플당) ※일부상품 제외
❷ 현장 예약시 **토스터기+스타벅스 1만원 기프티카드** 증정

**소개 이벤트** | 결혼을 준비하시는 지인을 소개시켜주세요!

예약 성사시 소개시켜 주신 분께는 **5만원 신세계 모바일상품권**과
예약하신 커플께 **5만원 하나투어리스트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중입니다.
(허니문 예정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도 동일혜택 적용)
**사전 온라인 신청 필수** http://me2.do/FegLcydp
※ 소개이벤트 신청 후 주말상담회 참여 시 두가지 혜택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 01 발리 6일
**푸리 2박+불가리 오션뷰 2박**

**1,831,1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❶
**▶9월 매주 토, 일, 월요일 출발**

- 발리(4) ● 9월 한정특가
- 빌라 내 레스토랑 디너 1회와 런치세트 포함
- 발리 문화 체험 및 우붓 관광, 시내관광 포함
- 푸리 누사두아 디럭스룸 2박+불가리 원베드 오션뷰 풀빌라 2박
- 4회 마사지 포함
  - 아로마 오일 마사지, 초코렛 스파 2회, 황실 전통 지압 마사지



## 02 파리/스위스 7일/8일
**대한항공 좌석확보**

**3,269,8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9월~11월 매주 일, 월요일 출발**

- 파리(3)-인터라켄(2)-취리히(1/0) ● 2억원 여행자보험 가입
- 파리 시내 인기호텔/ NOVOTEL TOUR EIFFEL 호텔 확정
- 경력 5년이상의 스타가이드와 함께 관광(파리 1일+스위스 2일)
- 한국인 가이드의 편안한 공항↔미팅&샌딩서비스 포함
- 에펠탑 조망 56층 높이 파리 빌딩 특식
- 하나투어 전용 테이블 스위스 특식
- 리얼 야경! 20시이후 야경투어+대표 옵션 세느강 유람선 포함



## 03 오아후 6일/7일
**쉐라톤 와이키키**

**2,792,0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7월 4일~12월 매주 토, 일, 월요일 출발**

- 오아후(4) ● 와이켈레 아울렛 포함한 동부해안 섬일주
- 대한항공 이용시 쉐라톤 와이키키 전박 킹베드 개런티
- 사전 예약할인-커플당 120일전 40만원/90일전 30만원/60일전 20만원
- 하나우마베이 스노클링 1인요금으로 동반자 무료혜택
- 현지 하나투어 투어라운지 운영
  - 위급시 도움요청, 와이파이에그 대여, 할인쿠폰, 현지정보 제공 등
- 특식:메리엇 와이키키 호텔 내 쿠히오그릴뷔페 디너, 카후쿠새우트럭, 씨푸드뷔페 포함



## 04 푸껫★신부무료 6일
**마이카오드림 나타이 풀테라스 풀스윗(2+2)**

**1,700,000**부터
(⊕기사/가이드경비 : **포함**/선택경비 : **있음**) ❶
**▶9월~12월 14일 매주 토, 일요일 출발**

- 푸껫(4) ● 로맨틱 요트투어 & VOD촬영 포함
- 마이카오드림 나타이 리조트 스파 90분 체험
- 캐리어 랩핑 서비스(커플당 1개)
- 데이터 무제한 7일 USIM카드(커플당 1개 제공)
- 리조트 선셋 디너 1회 포함, 아프로디테쇼 관람

☎ 예약문의 **02)2127-1234**